



時計塔



2019년 10월 20일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6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李聖吉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蘆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cmaaus.org

www.snucmaaus.org

SNUCMAA of North America 37th Convention

37차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

April 2nd(Thursday)-5th(Sunday), 2020

at **Westin Tysons Corner**

Falls Church, VA 22043 703-893-1340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의대 동문여러분!

저희 회장단에서는 알찬 동창회 활동을 모색하고, 지역 동창회와 동기회를 더 힘차게 도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창생은 형제자매와 같은 며, 한없이 아름다운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만나고, 각자의 존재가치를 재인식하고 또 서로 인식시키면서 지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내년 4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만나요.

제 37회 학술대회는 Senior Health라는 주제로 2020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으며, 저희 회장단은 감사와 긴장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조를 배울 수 있는 특별강의도 있으며, 동문님들이 쓰시는 멋있는 시조에 특별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원(79) 동문께서는 많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동기와 선 후배가 어울려 마냥 기뻐하며 웃는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에서 유명하신 사회자까지 동원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서울의대 후배들이 미주로 매칭 하려 왔습니다. 모교의 신찬수 학장님도 후배들이 이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니, 우리 동창회는 더 건전하고 융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축복받은 우리 동문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며 내년 4월에 꼭 뵈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성길(71) 드림

April 2nd **Golf at Westwood Country Club**
Thursday **Washington Area Tour**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동기들의 저녁 모임

April 4th **CME General Medical Scientific Program**
Saturday **Non CME schedule**
 Grand Banquet 6 pm-10:30pm

April 3rd **CME General Medical Scientific Program**
Friday **Non CME schedule**
 Banquet 6 pm-10pm

April 5th am CME General Medical Scientific Program
Sunday End at noon

자세한 학술대회의 내용과 호텔예약 안내 등은 다음 호에 추후 발표됩니다.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 37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서윤석, 박종철, 김영애, 신용계 일동

2019-2020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9년 9월 28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장소: 동부 - Double Tree Hilton, NJ / 서부 - JJ Grand Hotel, CA

동부 참석자:

이만택(58)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서윤석(68) 서 랑(69) 이성길(71) 강유구(71)
강창홍(71) 서인석(73) 이선희(81) 서귀숙(84) 강민종(91) 박종철(99)
장세권(01) 송경민(09) 존 백(fund manager), 박성남 회계사, Jamie Kim



서부 참석자: 김태웅(63) 김성환(71) 김일영(71) 전경배(75) 안우성(76)



Proxy:

주광국(68) 조세진(71) 이원택(71) 곽승용(71) 정균희(72) 고용규(73)
최광휘(76) 한승신(76) 김동훈(77) 남명호(81) 차민영(82) 신원석(88)

1. 참석인원 점검 후 회장 이성길이 제 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2. 동, 서부 참석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3. 2019 제2차 대의원회 초록에 대해,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4. 1차 이사회의 Agenda와 순서를 발표함.

5. 이성길 회장 보고:

함께 대 서울의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며, 3개월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사무실로부터 받은 회비 납부자 명단에서 고영철(49), 최고령 회원의 회비 내심을 보고 이 동문회는 선배님들의 열정과 땀으로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음.

임기 중에 동창회의 서류를 Cloud에 올려서 차기 회장단과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Cloud system을 구축하면 쉬운 정보교환으로 서울에서 졸업한 이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여기에 대한 제의에는 동창회의 모든 정보가 외부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By-Law에 의하면 동문 친목이 가장 큰 목적인데, 지부 활성을 하겠고, senior 여행도 돋겠고 이를 위한 fund raising도 노력하고, GP fund를 2만불 정도 특별 brochure를 만들어 fund raising 하겠음.

6. 30년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한 박성남 회계사에게 공로상패를 증정함.

7. 재무 보고: 강유구(71) 재무보고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보고할 게 없음.

동 문 동 정 및 지 부 소 식

Virginia Chapter 골프 모임



2019년 9월 26일 Gainesville에 있는 경치가 좋은 Stonewall Golf Course에서 가을 골프 모임이 있었다. 봄가을로 있는 이 행사가 지난 봄에 7홀을 치고 도중에 폭우로 중단 되었다가 이날 그 레인 체크를 사용하여 다시 모인 것이다. 김주평(68) 골프위원장 내외가 주광국(68) 신용계(68)와 협력하여 행사를 치뤘다. 담당자 이외에 식사시 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참가자는 한달수(59) 김용덕(59) 서휘열(61) 진창건(61) 이종두(63) 고영희(63) 이웅만(64), 채무원(65) 김진수(66) 방정화(67) 내외, 김영덕(68), 김희주(68) 김병오(69) 박수웅(69) 박동수(71), 조병선(71) 김재홍(71) 내외, 그리고 서윤석(68) 내외다.

여자 수상자에는 Gross Champion에 Mrs. 방정화, Callaway로는 Mrs. 채무원, Mrs. 박수웅, Mrs. 김병오, 남자 수상자에는 Gross Champion에 진창건(61) 선배님이 77로 우승했고 Callaway로는 주광국 조병선 박수웅, 근접상에는 진창건 박수웅 미세스 박수웅(재희)가 영예의 상을 받았다.

이만택(58) 선배님의 주선으로 도교 신찬수 의대 학장이 보내온 교기가 선을 보였으며 앞으로 경조사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다. 1981, 82, 83년 3년 계속해서 미주 동창회 골프대회 우승으로 받았던 순수한 은으로 된 트로피를 고영희

앞으로 재무를 어찌 끌고갈 것인가를 밝혔다. 모든 것을 문자화하고 digital화하여 Cloud에 입력, modern화 하겠음. By-Law에 재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며 특별 반대 사항이 없으면 허락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겠음. <여기에서 대하여서는 By-Law에 재무의 직책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의견이 나왔음>

8. Finance committee (김성환 (71) chair) 보고:

이사회 바로 전에 받은 박성남 회계사의 financial statement를 지난 회기의 정균희 회장과 최광휘 재무와 함께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 하겠다고 함.

9. Publication committee (서윤석(68) 편집장) 보고:

시계탑 문집 제 6호 발간 준비 내용을 밝혔고, 현재 시계탑은 잘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시계탑은 서로 융합하고 소통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의 언론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배제한다면, 편집회의에는 편집위원들만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고함.

10. Scholarship committee (이선희(81), 강민종(91) chair) 보고:

2019-2020년의 미주 장학생 지원자는 예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update된 공고와 system이 이런 좋은 현상을 가져온 듯 함.

지난 회의에서 장학금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인원을 SNUCMAA 장학생을 4명으로 하고, 상향된 장학금으로 2명의 김태웅(63) 장학생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5명의 SNUCMAA 장학생과 2명의 김태웅(63) 장학생을 줄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함.

심사는 committee member들이 매우 엄정한 심사의견을 내어 학생의 경제사정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학력을 그 다음으로 보아서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에 발표함. 김태웅(63) 장학금에 대하여서는 가장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한 명은 동부에서 또 한 명은 서부에서 선택함.

11.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66) chair와 펀드매니저 존 백) 보고:

지난 회의 보고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이 이어지고 있고, 3년전부터 general fund에서 매 회기 1만 불을 scholarship fund로 이체하고 있음.

12. Charity committee (최영자(66) chair) 보고:

현재로는 작은 fund(\$2,000)를 뉴욕장애인기관(NYCOCO)에 지원한다고 보고했음. 모든 자선(Africa, Hurricane, Haiti 난민 등)하는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37th 학술대회에서 제약회사들의 booth를 만들어 fund raising을 할 구상을 밝힘. <여기에서 대하여 동창회의 현실과 제약회사들의 운영시도가 오래 전과는 다른 현실임을 밝히는 의견이 나왔고, 또 동창회의 fund의 사용은 미국 내를 먼저 그리고 더욱 동창회를 먼저 생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13. Green Project (장세권(01) chair) 보고:

GP structure strengthen하고, 새 member recruit하고, 학술대회 GP 참여를 증진시키고, GP 주도 project를 enhance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밝혔음.

학술대회 참여 GP member에 대한 reimburse를 이사회에 요청을 하였음.

이에 이성길 회장이 37차 학술대회의 20명 정도 GP 참여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본인이 fund raising을 2만 불 정도 이 목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음.

14. Scientific committee report (박종철(99) chair) 보고:

아직 구체적인 Scientific session program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Senior Health를 theme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함.

15. Nomination Committee (정균희(72) chair) 서면 보고:

현재 남가주 지부회장인 안우성(76) 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16. 특별 사항으로는 작고하신 동문들께 보내는 조화를 대신하여 관에 있는 서울의대 로고가 있는 큰 cloth를 준비하여 보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많은 회원의 반대로 무산 되었음.

17. 새로운 토의사항: 본회가 끝난 다음에, 권정덕(64) 동문이 앞으로는 각 위원회, 사무부에서, 연초 예산(7/1)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1차 회의에서 예산이 발표되고, 좀더 동창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토의했음.

18. 특별 발표: 송경민(09)의 새 사업(Classfd)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19. 폐회 선언. 시간: 오후 5:10 동부시간

(63) 동문이 기증하여 앞으로 우리 의대 행사에 잘 광이 나도록 닦아서 의논하여 유용하게 쓰도록 했다. 이날 Tee Box를 넘기는 5,700 yard인 Red Tee에서 여자는 그 앞의 Yellow Tee에서 했다. - 글과 사진 : 서윤석



김재홍(71), 박동수(71), 조병선(71), 김병오(69), 박수웅(69), 이웅만(64)



한달수(59), 김용덕(59), 서휘열(61), 진창건(61)



김진수(66), 서윤석(68), 방정화(67), 이종두(63), 고영희(63)

67년도 졸업 동기 동부지역 가을 골프모임



1967년도 동부지역 동기들이 매년 가을 해오던 Albany, NY에서의 골프모임을 (김상복 동기께서 약 25년간 수고!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Pennsylvania에 있는 Great Bear Golf Club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4일간 있었습니다. 흥준호 부부의 치밀하고도 정성어린 준비로 많은 동문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매년 오시던 몇 분이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셨지만 그래도 흥준호, 한영수, 김인귀, 김상복, 우준균, 이태안, 김일환, 최무웅, 흥일점인 박희옥, 멀리 Michigan에서 매년 오시는 이태석 부부, Rhode Island에서 한서동, 모두 11동문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design도 좋은 잘 다듬어진 골프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며 다녔던 식당들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엔 고급 steak restaurant에서 분위기를 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한 round에서 birdie를 세 개씩 하며 통산 81을 친 이태안 동기가 비싼 포도주에 모든 술값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서, 모두들 그렇게 맛난 포도주는 처음이라나(?) 첫 날 scramble에서는 김인귀, 최시열(박희옥 동기 남편), Mrs. 흥준호, Mrs. 이태석이 명예의 일등, (2등과는 불과 0.2점 차이)

Michigan에서 9 시간이나 긴 운전을 해 오신 이태석 동기는 둘째 날 79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노익장의 전재함을 과시해 주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즉 이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모일까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번 즐거운 모임인데!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 또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글과 사진: 이태안(67) Fort Lee, New Jersey에서

중부뉴욕지부의 연례 골프모임에 다녀 와서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중부뉴욕지부의 모임에 몇 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Binghamton 근교의 골프장 두 곳에서 1박 2일의 회동이 있었다. 날씨가 큰 부조를 한 것도 있었고, 지부의 회원 중 참가 가능한 인원 전원이 (18명, 부부동반 포함) 출석하였으니 모임을 준비한 임웅규(69) 선배 내외분의 수고에 조금은 보답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뭇잎이 막 새 옷을 입으려 하는 초가을에 도심의 분주함과 교통 체증에서 벗어난 upstate에서의 주말은 아직 바쁜 일과를 보내는 회원에게는 작은 휴식을,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는 회원에게는 즐거운 자극이 되었다. 발끝에 전해지는 페어웨이의 부드러움, 옆 홀에서 들려오는 하이파이브의 흥겨움, 그리고 네 시간 거리에서 공수한 단팥빵의 달콤함... 이 모든 것에 앞서 사람을 모아 하는 선후배, 동기 간의 마음의 끈,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고야 마는 배려와 애정이 있어서 30년 모임이 이어졌으리라. 필자를 포함 뉴욕 근처로 옮겨 간 세 가족이 몇 년째 여전히 모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도 뭔가 특별한 꿀단지가 이 지부 모임에 있는 것 같다. 그 꿀단지의 꿀이 마르지 않게 하는 공은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현 회장 임웅규(69) 선배님과 이런 전통을 쓰아 오신 여러 전 회장님과 회원들 모두의 것이겠지. 30년 전 짚은 수련의 시절 함께 진로를 고심하고 어린 자식들 일을 상의하던 모임이 이제는 손자 손녀 자랑을 하며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주고받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흐르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 그룹은 앞으로 한 30년 더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 2019년 9월 8일 Traditions at the Glen Golf Course에서 서상철, 권정덕, 홍선경, 오인환, 유강, 한승신 김정아, 민발식, 임웅규, 경우현 동문 부부와 박세준, 서귀숙 동문. 선종칠 동문 부부는 저녁식사에 동참. - 서귀숙 (84, 대뉴욕)

원선영 화가 작품집 발간



1967년 졸업 이태안 동문의 부인인 원선영(Sun Young Won Lee, Ph.D.) 화가가 지난 4월 전시회에 이어 7월에 작품집을 펴냈다. 원교수는 이화여자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우리나라 국전에서 4차례(63, 64, 65, 66년) 특별상을 받았으며 도미 후에 Ohio State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작품 활동은 물론 Ohio State University, Professor/Department Art Education로 활약했다. - 글: 편집인



마지막 잎새들(Last Leaves)



풍경(Landscape)



야상곡(Nocturne)

고 한용현(48) 동문 가족 장학기금 기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제3대 회장으로 동창회의 초석을 다지신 고 한용현(48)동문의 가족께서 장학기금으로 \$3,000을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일(67) 교수 이야기



Chicago 근처의 Munster, Illinois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박정일 교수 2019년 7월 중순 중국 광저우 시에서 열린 성형외과 학술대회에 Keynote Speaker로 초청되어 참가한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고 있다.

2007년 그가 Saunders 출판사를 통하여 출간한 텍스트북의 타이틀은 "Asian Facial Cosmetic Surgery"인데 이 책은 동양인에 독특한 분야의 수술만을 모아서 기술된 것으로서 처음으로 영문으로 나온 것이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 436 페이지에 걸친 수술 이론과 수술 방법을 기술하는 텍스트북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제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많은 외과의사들이 참고로 하는 서적이 되었다. 이번 학회에 참석한 700여 명(대부분 성형외과 의사)이 이 책을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무되었고 그를 매우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환대해주어서 대단한 기쁨과 보람을 갖고 돌아왔다고 닥터 박은 말한다.

닥터 박은 서울대학교, Colorado University Medical Center, Indian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교육을 받고 Indiana 대학에서도 가르치던 성형외과 의사이다. 그가 쓴 논문이 많지만 그 중에도 Orbicularis Levator fixation technique, Z-epicanthoplasty, Preoperative Facial Nerve Mapping, En Bloc Face Lift 등이 학계에 뛰어난 논문으로 알려져있다. - 글: 편집인 서윤석



영어와 한글, 중국어로도 출간된 저서의 표지

한국 여의사 디너 모임

뉴욕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여의사회(MWIA)에 참석한 한국 여의사들이 뉴욕 지역의 재미 여의사를 초청한 디너 모임이 지난 7월 26일 브루클린의 Queen Italian Restaurant에서 있었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각기 다른 의과대학을 졸업한 80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서는 최영자(66), 서귀숙(84) 동문이, 서울에서는 백현욱(80), 황규리(97) 동문이 함께하였다.



졸업 50주년기념 준비모임(서울)에서 69년 동문들



워너 허 교수 미국부인종양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



허선행(64) 동문의 자제 워너 허(Warner K. Huh) 교수가 역대 최연소로 또 한인 의사로는 처음으로 자궁암과 자궁경부암 등 부인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미국부인종양학회(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SGO) 회장으로 선임됐다.

1969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 조지타운 의과대학을 1995년에 졸업하고, 현재 앨라바마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이면서 오닐 통합암센터 수석 과학자인 허 교수는 지난 3월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50차 본회의에서 51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돼 최근 임기를 시작했다.

워너 허 교수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지금까지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유명 학술지에 관련 논문 225편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취임사에서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기쁘다며 (학회는) 부인암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시계탑 문집 제6집 발행 안내문

우리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5년~2019년 시계탑에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제 6집 문집을 발행합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곧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작품을 문의하고 그 기금을 모금하는 안내문을 각 동문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동창회 사무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개인 주소로 발송된 편지를 받으신 분은 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표는 SNUCMAA of North America로 하시면 됩니다. 2020년 4월초 Washington, Virginia에서 있을 Convention 전에 문집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 드림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고의걸 (61) 선배님

1. 1964년 7월 31일
메릴랜드 밸티모어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당시의 저의 심
경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어서 한
국 육군에서 부여하는 인턴쉽을 택하
지 않고 만 3년 만에 정식으로 제대하
는 첫 케이스로 60년 졸업 임필순 선
배 그리고 손주현 동기와 셋이서 밸티
모어에 있는 Maryland General Hospital
에 오게 됐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 50불을 지참했는데
이곳에 도착하니 35불 남았습니다.

2. 이곳 Johns Hopkins 대학에서 경
제학 박사과정을 하는 한국 친구의 소
개로 Summer Course를 하는 현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1967년이었습니다.

3. 특별한 계기는 없고 제 성격에
맞아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제 아들과
딸 틴에이저 때 여름에는 beach로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데리고 다
닐 때였습니다.

4. 일반 마취 Practice를 했습니다.

Maryland University Hospital에서 3년
Resident Course를 마치고 이곳 밸티모
어에 있는 Franklin Square Hospital에서
30년 동안 practice 하고 1999년에 은퇴
했습니다. 통합 10,000 case를 다루었다
고 생각합니다.

5. 곤경을 당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
고 굳건히 맡은 일을 충성 들여 해 나
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처음 이곳에 왔
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병원에서



하는 일에 너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
아서 (한국에서 인턴을 하지 않고 왔
음) 상사한테나 동료 스텝한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했던 첫해였습니다.

가장 보람된 경험은 3년 마취 레지
던트를 마쳤을 때과장님께서 "You
are one of the best residents I ever
had."라는 찬사를 받았던 때입니다. 3
년 만에 열등생 인턴에서 우수한 레지
던트로 변신한 것입니다.

6. 본과 2학년 때입니다. "공관교실"
이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기초교실 근
처에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둘하
고 셋이서 허가도 없이 공관교실 한구
석에서 자취방을 꾸려놓고 취식을 하
고 있었는데 하루는 명주완 학장님께
들켜서 당장 쫓겨났던 일입니다. 좀
후회되는 일은 학생 때 임상실습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 이제는 손자들이 대학에 가는 나
이가 되었으니 우리 세대의 경험은 별
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8. 공과대학에 가서 engineer가 되었
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9. 저는 젊어서부터 골프광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1967년 60년 졸업 선배
정오영 형의 권고로 골프 Driving
Range에 간 것을 계기로 과거 50년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핸디
8을 친 때가 있었고 Hole in One을 세
번 하고 한 번은 Hole in One으로
BMW 차를 탔습니다. Wife도 골프를
즐겨 St. Andrews Old Course, Pebble
Beach 등 유수한 코스를 많이 다녀왔
습니다. 근년에 제 나이를 2번 쳤습니다.
요즈음도 매일 9 hole을 돋니다.

10. 시계탑을 열심히 애독합니다.
You are doing a good job!

그들에게 책값을 모두 깊었습니다.

7. 의사 노릇 한평생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으려고 노력하고 요즈음도 계단은 늘
걸어서 올라갑니다. 서두르지 말고 낙
관 주위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10. 참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는 우리 대부분이 많이 늙었으니까 고
인들의 eulogy를 너무 길게 혹은 너무
자주 쓸 수는 없겠지요. 짧은 동창들
의 글을 조금 더 자주 읽게 되면 좋겠
고요. 여행기는 짧을수록 좋겠습니다.

박승균 (61) 선배님

1. 1966년 3월 31일
육군에서 제대하고
4월 4일 Pittsburgh에
서 Intern 생활을 시
작했습니다.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그 사
실만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일 인당 50불씩 지참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동급생 (고) 김진
락 군의 한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
느라고 100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카메라(75불)와 여행
용 자명종 시계(20불)를 사고 나니까
5불가량 남았었네요.

2. 아주 옛날에는 같은 길목에서 살
았지만 한 10년가량 못 보고 지냈습
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오기 3-
4개월 전에 그 사람의 학교로 짧은 편
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습니다.

"... 망망대해, 우리는 마지막 한
번 결을 스쳐 갑니다. 나의 쪽배로 갈
아타시겠습니까? 미지의 세계, 그러나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3. 6.25 동란 중 한때 우리는 인천에
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수복하였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인천에서 할머니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느닷없이 편지가 왔습니다.
“내 생각으로 네가 의과대학에 가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별로 나 자신이 깨달은 생각도 없이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의 중요한 조건: (1) 겸허 (2) 윤
리 (3) 지식의 추구 (4) 긍지와 사회적
책임감.

4. 정신과 (History of Psychiatry,
Psychiatric Education, Study of Suicide,
Psychodynamics, Psychiatry & Medicine.)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건강. 가정. 경제적 여유. 둘째, Be
happy with what you already have. 셋
째, Be a citizen of the world.

가장 힘들었던 때: 아무를 잊었을
때. 가장 보람된 경험은, 수일간 앓고
나서 돌아왔더니 환자들이 모두 일어
어서 박수를 쳐 주었을 때.

6. (1) 4.19 학생 데모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1, 2 학년 수업실로 달려가
서 후배들을 대동하고 경무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둘렀
던지 효자동 경찰들의 저지선까지 왔
을 때는 우리 서울의대 학생들이 최전
선에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대표로 총
칼을 겨누고 있는 경비선 앞으로 한발
한발 걸어 나가던 기억.

(2) 의과대학 2년 학창 시절. “과학
서적 회사”가 우리들의 원서 구매 예
약금을 받아먹은 후 파산되는 바람에
기다리던 원서는 공중으로 날아갔습
니다. 나중에 그 책들은 사실 모 무역
회사의 참고 속에 묻혀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있는 그
회사로 가서 집요한 농성을 시도했습
니다. 책을 안 내주면 신문사와 방송
국을 불러서 그들의 모든 비리를 공개
하겠다고 따졌습니다. 그들의 외국무
역 행위에 무슨 약점이라도 있었던지
한참 실랑이 끝에 그 책들을 내놓았습
니다. 물론 그 책들을 다 팔고 난 뒤

박찬형 (62) 선배님

1. 1966년 12월 말에
Pittsburgh에 왔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전
도시에 친란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은 \$30(\$50?) 이었
지요. 이때 출국 규정상 그 이상 액수
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게 돼있지 않았
나요? 이때 오신 다른 분들도 같은 액
수의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규
정 때문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렵겠지.

2. 서울대병원에서 intern과 resident
를 좀 하다가 왔는데, 이때 같은 병동
에서 같이 일하던, 西 7병동으로 그
당시 간호대학생으로 파견 나온 간호
대학 1회 졸업생과 알게 되어서 결혼
하여 아직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3. 어렸을 때부터 약(tablet)을 먹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인상에 남아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4. Cancer Research 중에서도 항암신
약개발을 내 entire career를 통해서 해
왔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US Patent를 냈고 지금 제약
회사와의 제휴로 이 project가 잘 진행
되도록 노력중입니다.

물론 global 제약회사와 연락 중이나
한국에서도 지금 신약개발을 적극 추
진하자고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한국의 제약계와도 협력이 됐으면 좋겠
는데, 서운석 회장님도 도와주시기도 했고(감사합니다!), 이 방면에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으면(동문이나
그 2세 중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park.c.hanh@gmail.com) 같이 협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신약개발에 미국에서 큰
national level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암 환자가 7, 8개월 살 수 있
는 사람이 chemotherapy를 받으면(내
가 일평생 했던 치료이지요) 한 2-3개
월 더 살 수 있는데; 요새 새로 나오
는 Molecularly-targeted therapy나 Immuno
therapy를 받으면 사망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놀랍
지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따라
옵니다.

2. 1965년 겨울에 사촌 형님의 소개
로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낳아서 열심히 기를 때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
합니다.

왔습니다. 이 약 값이 1년에 \$150,000 이
나니, limited-income senior들이 파산을 많
이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환자까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ironic 한 것은,
완전한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Trump까지 나와서 약값을
내려라 할 정도이니까요 (물론 Sanders
나 민주당도 그러지만). 작년에는
CART라는 암 치료의, 그 특허 사용
권리(License)를 한 2nd Class 제약회사
인 Gilead에서 사는데 \$12Billion (Million
이 아니고)을 냈으니까, 이렇게 환자
들에게서 많이 받아도 10년은 해야 간
신히 본전을 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에 또 Ironic 한 것은 Trump가 Mexico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훨
씬 적은 \$5.48 Billion인데 이것을 가지
고 National Shutdown까지 가지 않았어
요. 이것이 미국에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많은 중국/인도 환자들이 이 약을
쓰니까(물론 거기에서는 그 약 값이
훨씬 싸지만) 거기에서 미국으로 들어
오는 돈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 신약 개발 연구를 whole career를
통하여 하면서, 의과대학 medical
oncology faculty로 환자도 봐야하니, 내
개인생활이 많이 희생이 돼요.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해했지요. 주 중에는 환
자를 본 다음 5시 이후에는 연구실에
오래 남아있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연
구실에 갔어야 했으니--.

5. 이것은 간단히 대답하기에 너무
심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6. 해부학 실습시간에 학생 6(?)명당
시체 한 구씩을 배당받고 실습을 하는
데, 그날은 속이 아주 역겨워서 집에
와서 밥을 못 먹었지요.

7. 다른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의사이지요.

8. 글쎄,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9.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매일
aerobic 운동(주로 elliptical)을 30분 했
었는데, 너무 진력이 나고, 또 요새
“senior들이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나쁘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옳다고 하고 그 지긋지긋한 운동을
every other day로 줄였습니다.

10. 우리 의대동창회/시계탑을 위
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태요 (62) 선배님



1. 힘들게 졸업을
하고 나니, 수련과정
이 너무나 길고 또 당
시 한국 의학이 낙후
되어 있어서, 미국에
서 더 좋은 수련을 받
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압
박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에는 수
중에는 50불이 있었고 그것도 친구한
테 빌린 것이지요.

2. 1965년 겨울에 사촌 형님의 소개
로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낳아서 열심히 기를 때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
합니다.

힘이 들기는 해도 자신의 가정을 이
끄는 것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3.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두들 공과대학을 가리라고 믿었
습니다. 1956년 대한민국의 다른 과목
의 대학들이 학문적으로 너무도 뒤져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 당시
안정되고 충실히 것이 의과대학이라
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다음에>



강현선 (98) 동문

새초롬 단발머리 여대생이 바이올린 연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손은 바쁘게 바이올린 위로 움직이고, 두 눈은 악보와 지휘자를, 귀는 선율을 쫓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강현선(98) 동문이 서울의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에 몰입하던 모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무척 따르는 선배님인 강 동문은 악기를 연주할 때면 도도한 세련미가 넘쳤고, 후배들 고민 상담을 해줄 때면 따뜻하고도 명쾌했지요.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에서 일하고 있는 강현선 동문은 복부 영상 전문가로서 암 환자들의 복잡한 영상을 명쾌하게 판독하여 임상 의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주말에는 보드게임으로 하나 되는 강현선 동문 가족의 이야기를 배달합니다.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유학길에 오르셔서 미국에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때의 경험이 제가 미국에서 학위와 수련을 받기로 결정한 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미국에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였던 어머니께서 저와 제 남동생(강현석 동문, 00)을 위해 주변 분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알아다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셔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의대를 졸업하고 일년 동안 집 근처의 기초연구실에 나가서 일하면서 USMLE와 GRE를 준비하였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 대학원 과정 후에 레지던시에 들어갔던 경우가 많았기에, 그 길을 따라서 저도 먼저 대학원에 들어가고 그 후에 레지던시 수련을 받는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듬해에 모교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Washington University in

<전면에서 계속> 의사로서 해외 유학은 나에게는 피안의 환상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 진지한 이념, 봉사정신과 꾸준함이 의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래에 와서 흔히 들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일반내과를 수련하고 나서 신경내과를 했지요.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신비한 것이라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임상의사이지요.

5.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수련을 받으면서 내 자신의 힘든 과거를 지양하고, 보다 좋은 가족을 위한 삶과 보다 나은

St. Louis, Neuroscience Program에서 박사과정에 들어오라는 합격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갓 졸업한데다가 연구 경험도 별로 없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다행히 박사과정을 9월이 아닌 인턴을 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3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배려해주셔서 2000년 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었네요. Functional MRI를 이용해 뇌의 언어 인지 기능을 영상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UPenn의 영상의학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난관이 있었지만 계획했던 바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 요즘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저는 복부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CT, MRI, ultrasound, fluoroscopy 등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병원과 떨어져 있는 외래 영상센터로 출근해서 CT를 판독할 때도 있습니다. 매주 필요에 따라 스케줄이 약간씩 다르지요. 저는 주로 간종양과 전립선암 환자들의 CT, MRI 판독을 많이 하는데, 하루 중 외과 의사들과 주고받는 전화와 이메일도 꽤 됩니다. 일주일에 60-70%는 임상, 20-30%는 연구 및 행정, 10%는 레지던시 수련 Site Director 업무를 합니다. 저희 병원 자체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없지만, 의료 단지 내의 UT Houston과 Baylor의 레지던트들이 매달 16명 정도 파견을 옵니다. 그 대학들로 저희 병원 교수들이 강의하러 나가기도 하지요.

3. 워낙 유명한 병원이지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병원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MD Anderson은 Houston의 Texas Medical Center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exas Medical Center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 의료 단지로서 21개의 종합 병원, 8개 전문 병원, 8개 연구 기관, 4개 의과대학, 7개 간호대학, 3개 보건기관, 2개 약학대학, 1개 치과대학 등 총 54개의 의료 관련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 도시나 타 주 혹은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서 호텔도 단지에 붙어있지요. 와보시면 수많은 건물들이 skybridge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후가 고온다습한데 건물 숫자는 워낙 많으니 그러한 설계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MD Anderson만 해도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처럼 환자나 내방객들이 shuttle cart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의료 단지가 도시의 다운타운처럼 형성이 되어있어서 교통이 다른 휴스턴 지역에 비하면 복잡하지만, 같이 모여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Texas Medical Center 전체에는 약 10만6천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총 병상수가 9천2백개입니다. 그중 MD Anderson은

내 자신의 생애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였지요.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받을 기간이었지요. 공자가 가르친 “수신제 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6. 해부학 구술시험에서 우리 여섯 명이 모두 헛소리만 하고 헛겨나온 일입니다. 재시험에 걸렸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모두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생리학 교수님(남기용 교수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던지 거기에는 하나의 진리(해답)가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진리들(해답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약 1만9천명이고 의사만 1,900명이 넘습니다. 교수의 40%가 여자이고 40%가 동양계임이 보여주듯이 diversity가 대단합니다. MD Anderson은 ‘Cancer’라는 글자를 지우는 병원으로가 의미하듯 암환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세부 전공 분야가 고도로 나뉘어서 단 하나의 장기에 관련된 종양만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과가 함께하는 tumor board도 장기별로 있지요. 간, 폐, 위, 대장, 흑색종 등등 이렇지요. 저희 병원 식당은 대체로 음식이 괜찮은 편이라 점심 도시락을 싸갈 필요는 없습니다. Houston 자체가 워낙 식도락이 발달한 곳인만큼 병원 내 메뉴도 일식에서부터 남아메리카식까지 다채롭고 맛있습니다.

4.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의대 오케스트라를 6년 동안 했었기에 거기에 담긴 기억이 많지요. 연주회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했던 바이올린 파트 연습과 전체 오케스트라 연습 각 학년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회관 강의실, 복도, 음악반실을 막론하고 공간이 있는 곳이면 삼삼오오 모여서 악기 연습을 했었어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지만 많은 공부량에 치이는 중에도 모두들 성실하게 연습과 연주회에 임했었지요. 늦은 시각 악기를 정리하고 의대 정문을 빠져나와 대학로를 가로질러 몰려가던 뒷풀이, 여름 방학때 서울 인근으로 떠나 학숙하며 집중 연습을 하던 음악캠프.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시절 악기 소리들과 얼굴들을 하나 둘 떠오르네요. 얼마전에 오랜만에 대학로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리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캠퍼스 안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뒷풀이로 자주 가던 ‘학림 다방’과 중국집 ‘진아춘’ 등 대학로의 가게들이 몰라보게 바뀌었더군요.

5. 캠퍼스 커플로서의 에피소드도 여쭤 봐도 될까요?

저는 의대 98년 졸업생이고, 남편(김정훈 동문, 내과 전공)은 한 학년 아래 99년 졸업생입니다. 학생 때에는 서로 몰랐어요. 제가 미국으로 올 준비를 하며 1년을 쉬고 인턴을 시작했는데, 3월 첫 달에 흉부외과 인턴을 남편과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흉부외과에는 인턴이 네 명 배정되어 가위바위보로 두 명은 lung team, 두 명은 heart team으로 나누는데, 마침 둘이서 lung team을 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지요. 환자 특성상 heart team은 밥을 제 때에 먹지 못하고 일하는 반면에, lung team은 꾸준히 저녁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한 팀으로 일하면서 매일 같이 저녁을 먹으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당시 인턴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정맥 주사였는데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7. 글쎄요.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공학계통도 좋을 것 같습니까?

8. 자식들의 능력과 취향을 파악해서 그런 점을 양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자식들이 하버드를 졸업했으니, 감사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 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니까요. 더욱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자라온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을 칭찬(?)하게 합니다.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9. 한 번에 2시간씩, 한 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하고 golf를 일주일에 한번 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잘 자면 되는 게 아닌가요?

기억이 납니다. 언제 호감이 생겼냐고요? 글쎄요, 시나브로? 만날수록 점점 호감이 생기면서 언젠가부터 사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인턴 스케줄에 편한 과가 많이 들어 있어서 3월 이후에도 자주 만날 시간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남편의 인성을 칭찬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인턴 막바지이던 12월에 결혼을 하고, 인턴을 마친 후 봄에 저는 미국으로, 남편은 군의관을 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수도권에서 복무하여 제가 틈나는대로 한국에 올 때 비교적 수월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3년 동안의 바다 건너 장거리 신혼 생활이 벌써 추억 속 이야기네요.

6. 벌써 오래 된 기억이시겠지만, 그 동안 부부가 수련을 받고 일을 하시면서 육아는 어떻게 해내셨나요? 요즘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큰 아들은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에 낳았고, 3년 뒤에 둘째는 레지던트 하면서 낳았습니다. 저희 둘 다 수련중일 때이고, 미국에 친척도 없어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도움이 컸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비자 만료로 한국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양쪽 부모님들께서 몇 달씩 머무르시며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서로 당직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느라 무척 조바심을 냈던 기억도 나네요. 당직을 바꿀 수가 없어서 둘다 같은 날에 밤당직을 선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다행히 입주 아주머니가 계실 때였지만 밤새 얼마나 마음이 쓰이던지요.

아이들에게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어떤 일에 꼭 성공을 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둘이 타고난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그 점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문 숙제이든, 수학 경시대회든, 피아노 대회든 열심히 하면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집에서 상을 주고, 노력을 칭찬해줍니다.

요즘 주말에는 주로 아이들 운전 기사, 휴식, 운동, 장보기, 밀린 이메일 처리를 합니다. 남편과 둘이서 몇 시에는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지 효율적인 동선을 짜는 작전을 세우며 즐거워합니다. 저희 가족은 보드 게임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 저녁에는 주로 보드 게임을 많이 하고 영화나 텔레비전도 다함께 보곤 합니다. 보드 게임은 주로 board game of the year 상을 받은 게임들을 YouTube 후기에서 찾아보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게임인지를 파악한 후 구입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주로 Five crown, Blokus, SET, Qwirkle 처럼 게임 시간이 짧지만 매 순간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임 위주로 했고, 아이들이 조금 큰 뒤에는 Carcassonne, Photosynthesis, Azul, <다음면에 계속>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인데 그저 주어진 것을 그대로 소중히 아끼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담배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 피웠고 그 후로는 절대 금연(禁煙)입니다.

10. 동창회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우리들도 더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여러 이웃이 사는 모든 인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란 우리들의 2세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용현 선배님의 마지막 시간을 회고하며

홍 선 경 (64, 대뉴욕)

제가 한용현 선배님(48)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가 태동 창립하던 시절(1970년대)에 선배님께서 제3회 동창회장을 맡아 기초 작업과 발전을 위해 활약하셨을 때, 때마침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저의 남편 권정덕(64)이 동창회 일에 많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였습니다.

그때 저는 까마득한 후배로서 먼저 오셔서 기반을 잡으신 선배님께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하였는데, 선배님께서 자기 부인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덕택으로 잘 살고 있다고 자랑 겸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은 후에는 신심이 깊으신 분으로도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마침 우리 막내딸이 한살쯤 되었었는데 가톨릭의 영세대부를 서 주시게 되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우리는 좀 더 개인적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바쁜 생활로 많은 접촉을 하지 못하였는데 간혹 만나게 되면 우리 딸의 안부를 챙겨 주시는 자상한 면이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시에 살던 우리는 한참 북쪽의 New York Upstate로 이사를 갔고 선배님께서도 은퇴하시어 Florida로 이사하신 후에는 교류가 한참 끊겼었지요. 그런데 우리 막내딸이 결혼식을 후로리다에서 하게 되어 연락드렸더니 식에 참석해 주셔서 20여년 만에 잠깐 만나 뵈는 인연으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은퇴 후 취미생활로 시작하신 미술에 깊이 정진하셔서, 원래 여고시절부터 유명하셨던 pianist이신 부인 박경희 여사와 미술전시회와 piano 독주회를 함께 개최하여 발표회를 가지셨다는 뉴스를 할준회보를 통해 듣고 두 분이 계속 정진하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또 20여년이 흐른 후 저희들도 은퇴하여 뉴저지로 옮겨

<전면에서 계속> Code name, Kingdom builder, Citadel 같은 약간 복잡한 게임들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블랙프라이데이 즈음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하나씩 개봉합니다. 한 게임에 슬슬 질리기 시작할 때 새 게임을 공개하는데, 그 날은 온집안이 흥분의 도가니죠. 작년에 사놓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Puerto rico, Power grid 등이 있는데, 언제 이 게임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7. 바쁜 중에 체력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헤어 관리 비법도 있다면 귀뜸해주세요.

이전에는 주로 집에 있는 treadmill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필라테스 비디오를 따라하면서 운동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직업이라 허리와 목이 빼근한데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몇 년 전에 거울을 보다보니 세상에, 얼굴 왼쪽과 오른쪽이 색이 다른거예요. 왼쪽 얼굴이 훨씬 많이 탄데다가 주근깨도 몇 개 있고, 출퇴근 거리가 3마일 정도로 짧은데도 출근은 동쪽 방향으로 퇴근은 서쪽 방향으로 운전을 반복하면서 강렬한 휴스턴의 태양에 왼쪽 얼굴만 그을린 것이죠. 그 후로는 운전할 때에는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휴스턴은 습도가 높아서 모자쓰는 것 외에 피부 관리 비법은 따로 없어요.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촉촉합니다. 다른 곳으로 여행

왔고 Dr. Han 님도 그댁의 따님이 살고있는 뉴저지로 옮겨 오시려고 하신다는 소식과 함께 작년 여름 저희에게 문의전화를 걸어오심으로써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40여년 전 동창회에서 같이 모시고 일하던 때를 회고하고 싶어서 그때 같이 일하시던 선배님 몇 분과 동료들을 모시고 Fort Lee, 뉴저지에서 작은 환영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그때 생존해 계셨으나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교통문제로 오실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절감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Dr. Han께서는 유난히 팽팽한 피부로 짚어 보이셨을 뿐 아니라 옛날에 있던 여러 일화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 기억력에 놀라 감탄했지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포트리 뉴저지에 아파트를 정해 놓으시고 겨울에 후로리다에 내려가셔서 사시던 집을 정리하시고 금년 초여름에 뉴저지로 완전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영인사 말씀을 드리려 전화를 했더니 뜻밖에 Dr. Han께서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여 너무 놀랐지요.

이사 오기 2-3주전 후로리다 집에서 넘어지신 후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아주 힘들어져서 이사 오신 후 곧 통증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으셨으나 효과가 없고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사 오시기 전에 후로리다에서 많은 진료와 검사를 받으셨는데 통증의 원인과 특별한 치료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이곳 뉴저지 병원에서도 많은 검사를 했으나 잡히는 것이 없어서 퇴원 예정일이 잡혔었지요. 그런데 하루 전날 MRI 재검사에서 대퇴골에 minor fracture가 있다고 나와서 퇴원 예정 날에 수술장으로 향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을 가면 바로 건조함을 느낍니다.

8.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미국 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요?

저희 가족은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휴가로 영국 런던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었고, 올해는 프랑스와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지의 역사를 미리 공부해보고 관광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며칠 지난 후 차를 렌트해서 르와르 강변의 샬또들, 몽생미쉘, 노르망디 해변을 여행했습니다. 외국에서 렌트 카로 고속도로와 시골길을 운전하고 다닌 것은 처음이었는데,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오아후 섬, 마우이 섬을 구경했는데,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즐거웠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그 다음 여행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곧 생깁니다. 최근에는 다빈치에 관심이 생겨서 내년 여행지로는 이탈리아를 점찍고 있어요. 이제는 여행 계획 짜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여행에 관해서는 저는 예술형, 남편은 복습형입니다. 저는 여행지에 가면 ‘아, 그 책에서 읽었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하고, 남편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 거기에서 감명깊게 봤던 것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합니다.

미국 여행에서는 특히 국립 공원을 좋아합니다. 국립 공원들은 저마다 매력이 있지만 특히 Bryce Canyon, Zion,

수술 받으시면 통증과 보행장애에서 빨리 회복되어 한국음식점이 많은 뉴저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맘껏 드실 수 있으시리라는 기대감으로 아주 기분 좋아 하셨죠. 시중드는 간호사나 수술 전 마취의사와도 시사 이야기와 농담을 영어와 Russia 언어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때 이분이 7개국 언어를 구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놀랐지요.

수술은 잘 끝났으나 통증과 보행불능에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인근 재활요양원으로 옮겨지셨지요. 3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며 보행기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아주 짧은 거리는 걸으실 수 있게 되어 그렇게 원하시던 대로 집으로 퇴원하셨어요. 집에 오신 후 기분도 더 좋아지시고 밭에 힘도 더 생기는 것 같다고 Mrs. Han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오신 후 4일째 밤에 어떻게 하시다가 환자용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해요. Mrs. Han은 그분을 둉다가 허리를 다치시고 Dr. Han은 다시 ambulance에 실려 병원에 재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골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통증은 더 심해져서 병원에서 먼저 계셨던 재활요양원으로 또 옮겨 가셨습니다. 이때 다시 방문해 보니 Dr. Han의 태도가 180도 변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를 보시자마자 첫 말씀이 “나는 이제 저세상으로 갑니다” 하시며 그 표정이 완전히 실신하신 모습이었어요. 방으로 치료하러 온 물리치료사의 치료도 거절하고 그냥 내버려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었어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등장이 생기고 더 아프실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침대에서 돌아눕히는데 두 사람의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형편으로 변하셨어요. Mrs. Han을 위해서라도 물리치료 받으시고 좀 더 걸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아요” 하시며 눈을 떽 감으시는 것이었어요 Dr. Han께서는 이제는 회복되어 집에 가서 사실 수 있다는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의 변화를 좌우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Grand Teton, Grand Canyon이 좋았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일정을 짜고 여행을 하였는데, 그리해보니 인솔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여행의 감동이 진하더군요. 다음에는 Colorado National Park나 Glacier National Park에 가보고 싶습니다.

9.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견디기 힘들더군요. 임상 진로는 레지던시처럼 핫수가 정해져있지만 박사 과정이나 연구자의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첫 해 레지던트 매칭에 실패했을 때 마음고생이 컸는데, 다행히 일 년 쉬면서 첫 아이도 낳고 다음 해에 지원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었기에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 난해한 환자의 영상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을 때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2020년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이 될까요?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올해는 큰 아들은 고등학교, 작은 아들은 중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해입니다. Houston은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도 magnet school이 많아서 따로 지원해야 하는데, 올 가을에 여러 학교 투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시험도

Mrs. Han을 고생시키는 것이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부인이 항상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셔서 어느 날 밤에는 불러오라고 소리를 치고 애원하셔서 Mrs. Han은 밤에 몇 번 불려 나가셨고 나중에는 침대 옆에 담요를 깔고 주무셨는데 다쳤던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전혀 못 주무시고 돌아오신 날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Dr. Han께서는 회복의 가능성에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본당 신부님께 청하여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종부성사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니까 나중에는 충분한 진통제를 투여받으셨는지 누워계시는 동안은 계속 주무셨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임종이 가까운 이를 방문하여 위로해주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성당의 교우 두 분이,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는 Mrs. Han의 사정을 알고서 방문해주셨어요. 그중의 한 분이 Dr. Han 의 손을 잡고있는 Mrs. Han 옆으로 와서 Dr. Han의 손을 잡았는데 이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아마 손은 이미 싸늘해졌고 맥박은 잡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나 봐요.

이렇게 Dr. Han께서는 부인의 손을 잡고 그렇게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날이 7월 23일.

나중에 장례미사 때 신부님께서 Dr. Han은 종부성사를 미소하시며 맞이하셨던 인상 깊은 분이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Dr. Han께서는 장장 92년의 파란곡 절이 없을 수 없는 파노리마 같은 자기 일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저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다고 생각해보니 그 자세가 부러웠습니다.

동기동창들은 모두 먼저 다 떠나셨고, 여러 지인들의 기력이나 기억력도 희미해져서, 그분의 마지막 몇 주일을 가깝게 뵙게 되는 인연으로, 한참 아래 말단 후배인 제가 토막 같은 이 회고록을 쓰게 되도록, 장수하신 Dr. Han!

이제는 이 세상 생명의 털을 벗어난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웃음을 짓고 계시겠지요.

봐야해서 바쁠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늘 그렇듯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암환자의 영상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별 탈없이 지내고 있는 지금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부부와 여행다니기를 거부하지 않는 두 녀석들을 데리고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려 다닐 예정입니다.

미국에서의 수련을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대 출신, 외국인 의사로서 병원 생활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동양인으로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언의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장점들, 특히 비교적으로 수평적인 병원과 의사 구조,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 등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훨씬 더 매력이 많은 곳이 미국 생활이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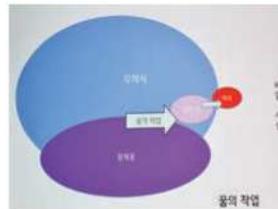
우리가 꾸는 꿈(夢 Dream)이란? 강창욱 박사의 강의를 듣고

2019년 월 8일 Virginia, Annandale의 설악가든에서 정신과 전문의 강창욱 (61) 동문이 이 지역의 포토맥 포럼 (회장 이영묵) 교양강좌 시리즈의 강사로 초빙되었다. 강박사는 이날 꿈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꿈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잠의 단계, 뇌전파, REM 수면, 꿈의 생리의 중요성, 꿈과 생명, 잠이 없으면 인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했다. 매달 둘째 목요일 서울대학 동창들과 부인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 지성인들이 자랑하는 이 모임에서 지난해에는 나길진 (59년 졸업) 정형외과 동문의 강의도 있었지만 이번 모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인지 더 많은 청중들이 모였다.

〈꿈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득이 무엇인가, 정신분석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꿈은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에서 어떤 역할

을 하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REM 수면 단계에서는 Low Voltage, Rapid Eye Movement, Muscle Atonia이며 이때 일



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밤마다 보통 꿈을 5-7개 꾸어도 곧 잊어버리고 마지막 꾼 것만 보통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곧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꿈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마음이란 〈영 Soul, 마음 Mind, 의식 Cognition, Awareness〉라고 설명했으며, 〈무의식에서 꿈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한 정신분석학의 대가 Austria의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죽은 후에

고 한용현(48) 동문 자제가 보내온 조사

Eulogy for Dad



There is a proverb that essentially says in times of sadness and death, what's more important than answers is perspective... certainly, when it comes to sadness and death, I don't have many answers... but when my mother and sister asked me to represent the family to share some thoughts on celebrating dad's life, I thought it might be helpful to share some perspective on a few of the experiences that I believe shaped the life of the husband my mother loved, the father my sister and I had, and the man most of you knew as a friend...

The truth is my father didn't really talk about the life he had before I knew him as dad. But I remember when I was in grammar school --- I think it was the second or third grade --- I had to write a report on a man I really admired, and so I decided to do it on my dad. And it was one of the only times, my dad ever discussed his life before he actually became dad.

Yong Hyon 'Joseph' Han was born on June 15th, 1926 in Hamnam, Korea... back then, there was no South Korea or North Korea, but simply Korea... and for most all of us, that simply means he was born in a countr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 very long time ago. But to add a little more context on what that meant for him back in the 1920's and 30's, he essentially grew up in a 3rd world country that was nothing like the thriving and prosperous country we know Korea to be today. It was a relatively modest country and one with no independence or freedom as back then Korea was governed and ruled under Japanese occupancy... sadly, Korea was a country in which he got whipped in school for speaking his native tongue of Korean and not speaking Japanese. For me to understand that, having grown up in America, is totally foreign... and it only makes me wonder, "what was that like for him and how did that shape the man he became?"

He was the oldest of five children in a family who was living quite comfortably in Hamnam, until civil unrest in Korea became imminent... and he needed to take care of his family at a very young age. He chose to not want a life in communism and fled to Seoul... and he took it upon himself to return back 3 times in order to bring his entire family from Hamnam to Seoul and leave their comfortable life to start their lives all over again. He essentially was robbed of much of his childhood and forced to grow up well before when children at his age should have to and it makes me wonder, "what was that like for him and how did that shape the man he became?"

And growing up poor under these conditions, he had to work to help take care of the family, as well as attend to his studies... and was accepted to and attended Seoul National University, widely known as the best university in Korea, for both his undergraduate degree, which he received in 1944 and his medical degree, which he received in 1948.

He lived in and fought in a civil war on the front lines of battlefield as a lieutenant colonel in the Korean Army Medical Corps at the age of 26... I can only imagine what it was like for a young man to see thousands of his countrymen and women die all around him... and it makes me wonder, "what was that like for him and how did that shape the man he became?"

He honorably completed his duty with the Army as a full-fledged Colonel... one of the youngest in the Korean army... and left Korea at the ripe old age of 27 to move to America in 1953. Today we see how many Koreans have proudly prospered here in America --- just look around us here in Fort Lee --- but back then he was very much alone. He was a true pioneer immigrating here to the US decades before Koreans moving to America became more common... and it can only make me wonder, "what was that like for him and how did that shape the man he became?"

He befriended a general in the US army in Korea and even though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his medical degree, he had to complete both an internship and residency here in the US to establish his career as an anesthesiologist... and as an immigrant and without knowing much English, he was accepted and completed his residency in 1958 at the prestigious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oldest medical school in America.

He met and married a talented and loving young pianist, Park Kyung-Hi, who was only 22 at the time, in 1961. And shortly thereafter, they had a son, James, and a

daughter, Stella.

가장 작품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화가이면서 자신의 꿈을 그린 정신병 환자이기도 했던 반 고호, 귀가 먹었던 (아마도 지금 같으면 수술로 고칠 수 있었던 Otosclerosis) 상태에서 제9교 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같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그들이 꾼 꿈과 작품 관계를 설명했다. 흔히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혐한 지역도 마다하고 돌아다니는 작가들 특히 시인(詩人)들도 그들의 꿈을 노트에 빨리 기록하여 문학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잠을 자고 정상적인 꿈을 꾸지 못하면 발생하는 정신 질환, 혹은 약물, 알콜 중독자들의 잠과 꿈의 결핍증 이야기, 그들이 꾸게 되는 악몽으로 고생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기전을 설명했다. 또 잠을 못 자게 고문을 하는 비인간적인 수사 과정, 인권의 자유를 위한다는 새로운 정치가들의 정책으로 창살 없는 병동을 주장하여 오히려 도시마다 수도 없이 늘어난, 살 집을 주어도 악몽 때문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행려인, 노숙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살, 이런 어려운 사회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청중의 질문에는 예언적인 상징(예로 돌아가신 선조를 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흥몽인

가?), 치매환자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하는 행동, 아이들의 꿈, 꿈과 육체의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프로이드학파의 정신 분석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 현대 뇌 정신의학(뇌의 혈액 소모량, 훌몬, 화학적인 분석)의 발전으로 알게 된 약물치료기전에 대하여도 설명했고 강의 후에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 때문인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도 따로 있었다. 이와 같이 그의 강의는 짧은 한 시간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량이지만 그대로 아주 유익한 강좌가 되었다. 강좌의 내용을 직접 취재하러 나온 위싱턴 지역의 한국일보와 지역 TV 방송에도 다음날 보도가 되었다.

강창욱 동문은 정신과 의사자 영문소설가이며 팔봉문학상 심사위원, 춘원 이광수 연구에도 조예가 깊은 활동가이다. 의사이며 소설가인 딸과 함께 부녀가 쌍벽을 이룬다. 그는 영문 소설 "The Last Journey of Jack Lewis" 영문번역서 "The best Short Stories of Ji Kwang-su"의 저자이다.

사진은 강의중인 강창욱 동문, 잠의 단계, 그리고 무의식과 꿈, 의식에 대한 설명이다. - 글: 편집인

daughter, Stella.

And many of you got to know him after all of that... a successful physician for over 30 years and a Professor of Clinical Anesthesiology at the NYU School of Medicine... a devoted husband who was married to his wife for over 57 years... a proud father of two and very proud grandfather of two... a charismatic and often charming man who had the gift of gab, who could and would go up to anyone and speak with them... he would sometimes go up to mothers he didn't know and pickup and kiss their little babies, much to the shock of some of them (lol)...

After he retired from medicine, he continued to live life with an unending thirst to learn and grow... and even though he had no previous experience, he studied art history and painting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nd evolved into a talented painter and photographer... and had many of his oil paintings shown at numerous exhibitions throughout south Florida.

He clearly was a man who lived his life his way... he was a true foodie who contrary to his education and experience as a doctor, loved to eat, often way too much, but he thoroughly enjoyed his life and no one was gonna tell him how to lead his life that he worked so hard to earn.

There are numerous words that come to mind to describe him --- successful; hard-working; determined; intelligent; courageous; detail-oriented; well-educated...

And he instilled all... well most... of these values in my sister and me. And whatever lifestyle, joy and small semblance of success that my sister and I have gained i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values our father and our mother had and taught.

Other words that come to mind... charming; charismatic; playful... he had this child-like wonderment, curiosity and exuberance about him, which kept him young. Truth be told, his health regressed quite a bit over the last year, but all the way up to the age of 92, people couldn't believe how old he actually was... they all thought he was 10 - 15 years younger than he was... and I think his youthful persona, his child-like wonderment & curiosity and his outlook on life had a lot to do with this. Also we were all very lucky and impressed that his mind was so razor-sharp right to the very end... knowing dad, he willed that to happen, and wouldn't have had it any other way.

With that said, we all know ther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so without any judgment, other words also come to mind to describe him... he was a fighter and a warrior... he was demanding... he was passionate, tenacious and sometimes impatient and short-tempered... he was opinionated... but all that came from his will to succeed and for having extremely high standards of himself and for others around him...

I won't lie... it wasn't always easy being his son... but I know it all came from a place of good intentions on wanting a better life for my sister and me and to not have us go through some of the challenges he had to endure... and as I reflect on all that he went through before he became dad and I ask "what was that like for him and how did that shape the man he became?"... it is all so understandable... to be whipped for speaking Korean in grammar school in his own native country... to flee his hometown, start over poor and forced to become a man when he was essentially still a boy... to see thousands of your countrymen and women die all around you... to be all alone and come to a foreign land half way around the world without really knowing the language and start a new life... experiences that I cannot fully comprehend, other than it undoubtedly all shaped his life.

There's a quote from Martin Luther King Jr. that always makes me think of dad... "The ultimate measure of a man is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Dad --- Stella and I are so incredibly grateful and appreciative for w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hile we will never fully understand all you went through to provide the wonderful upbringing we had... for sure, we know you did so by persevering through great challenge and controversy on your life's journey... and as you rest peacefully, I want you to know that even though I am well into middle-age now, I am still and will always be your little boy looking for your approval and love...

There is a beautiful Hawaiian practice called Ho'oponopono that means to "make things right" through repentance, forgiveness, gratitude and love... and its mantra repeats the following over and over... "I'm sorry... please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dad, I'm sorry, please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I hope you can now live unencumbered and freely without any of the sometimes painful experiences that you endured on earth... and have found peace in knowing that your journey not only shaped the man you became, but served so many others who you touched, moved and inspired... rest in peace, dad.

예술가와 여인들

Misogyny and Don Juanism

이수인(63, 남가주)

노르망디에 있는 에트르타(Etretat) 절벽은 많은 예술인들의 기록에 남아 있다. 루앙에 살던 모파상은 여기서 스승 풀로베르와 많은 산책을 했고 수영을 즐겼다. 그의 장편소설 “여자의 일생(Une vie)”은 에트르타의 절벽을 배경으로 한다. 남편과 아들에게 여인의 꿈을 몽땅 잃어버린 주인공 잔느는 조그만 보상을 얻는데 경쟁자인 또 하나의 여인, 아들의 애인을 복종시키고 쓸모없는 아들을 뺏아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랭빌의 소설 “광인들의 절벽(Falaise des fous)”은 에트르타의 절벽을 그린 모네와 쿠르베 이야기가 나온다. 모네가 절벽 끝에 서서 해와 빛의 조화만을 바라보다가 장님이 된 수 가난과 여인들의 부재를 견뎌내는 동안 자유롭게 살던 쿠르베는 귀족에게 제공되는 호화를 즐기고 여인들을 편력했고 그의 작품들은 비싸게 팔렸다. 모네의 “에트르타의 해변”과 쿠르베의 “에트르타의 절벽”은 그들의 성격만큼이나 판이하다. “해변” 이후엔 여인의 모습이 모네의 그림에서 자취를 감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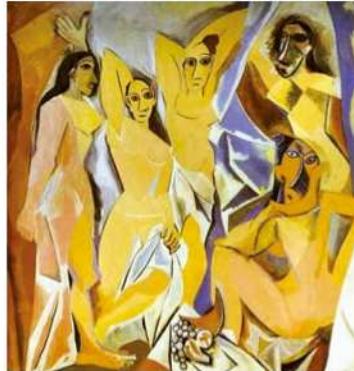
Misogyny를 검색하면 파블로 피카소가 나온다. 그의 손녀는 그의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여인들을 그의 동물적 성욕에 복종시키고, 길들이고, 소화해서 캔버스에 짓이겨 바른다. 피를 다 말린 다음 그들을 버린다.”

피카소의 일곱 명의 여인들 중 Walter의 그림을 보자. 성교 후의 황홀경의 표정, 한쪽 젖꼭지가 노출되고 두 손은 사타구니에 얹어진 채다.

\$139 millions!

Dora Maar는 왜 울려놓고 초상화를 그렸지? 여인의 부드러운 자태가 전혀 없는 유명한 창녀촌의 그림 “아비뇽의 아가씨들(Les Demoiselles d'Avig-non)”은 여성 파괴적인 그림이라고? 피카소의 파괴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또 있다. “Catching a bird”的 공격적인 잔혹한



장면을 본다.

“Boheme”이란 책에는 피카소의 다른 인간성을 그려 놓았다. Louvre에서 Mona Lisa가 도난당했을 적에 흑인 조각상들이 같이 분실되었는데 피카소는 후에 반환을 했지만 도난물인 줄 알면서 신고를 않고 그 조각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기괴한 이야기. 피카소가 큐비즘의 정상에 앉아 있던 시절의 이야기.

라마르슈(Lamarche)의 단편들은 피카소의 여인들 같은 매소키스트들의 존재를 그리고 있다.

소레르스(Philippe Sollers)는 팔십 일 세에 81권의 책을 낸 소설가. 불란서인들은 그에게 노벨상이 주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의 소설 “여인들(Femmes)”은 문학적인 여성 가장제를 표방하고 남성 멸살을 목표로 하는 비밀단체를 배경으로 한다. 지적 주도권을 둘러싼 페미니즘의 전쟁 이야기. 미국인 기자 Will은 이 단체의 적이다. Will이 Paris의 문필 사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에로틱한 만남을 소개한다. Will이 만난 중국 여인 Ysia는 웃으면서 공자를 여인들을 잡아먹는 사람(un mangeur de femmes)이라 부른다.

Kendall은 이 책을 ferociously misogynistic이라고 평한다. 비평가들의 말에 의하면 조그만 스캔들들이 있는 사회 풍자 소설인데 저자의 여성관은 어떤가? 문학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에서도 여인이 예술의 원천이라 주장한다. 여자에게 혼신적인 사생활을 한다. 그는 인간을 말하는 육체로 정의한다. 그의 첫 번째 소설 “기이한 고독(Une curieuse solitude)”에서 화자는 여자가 소유의 대상일 뿐이라 생각하지만 그 소유에서 생겨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새로 스페인에서 파란 온하녀 콘차에게서 육체적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 이 소설의 출간으로 불란서 문학에 거대한 희망을 주는 작가란 찬사를 들었다.

알베르 까뮈는 바람둥이였다. 싸트르나 켓슬러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신이 없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voracious sexual appetite”를 자랑했다. 이들은 워머나이징을 같이 했는지도 모른다. 싸트르의 동거녀인 보부아르가 까뮈의 연인이 되길 원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싸트르는 실망했다는 얘기.

까뮈의 육체에 대한 자세의 연유를 보자. 까뮈는 어릴 적 가난을 죽음같이 훌딱 벗은 가난이라 했다. 자기가 속한 pied-noir를 bastard race라 부르고 불란서인이라는 자긍심 외는 아무 긍지가 없는 petit-Blanc(white trash)이라 불렀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장

학금과 해, 바다, 싸커와 여자아이들을 꾀 차는 등 육체적 생활이고 그는 어릴 적부터 에너지에 가득 찬 charmeur였다. 하늘로 활짝 열린 도시 오랑은 짊음을 잊으면 매달릴 데가 없는 곳이었다. 하루가 지나갈 뿐 영원이란 없었다. 영생보다는 영원한 발랄함을 선호한다. 알지에의 자연과 햇빛에 탄 갈색 육체들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고향이었다(에세이 “알지에의 여름”). 까뮈는 불평을 한다. 기독교는 욕구를 정지시킨다. 그리스인들의 오만은 육체를 하락시킨다.

그의 철학적 에세이집 “시지프스의 신화”에 Don Juan 론이 있다. Don Juan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본다. Commander는 저녁식사 초대에 오지 않았으며 지역 행대신 그는 잃어버린 스페인 언덕의 한 수도원에 묻혀있을 거라고. 까뮈는 묻는다.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끔 사랑해야 되는가? 그는 여자 수집가가 아니고 매번 동량의 정열로 사랑했던다. 파우스트는 혼을 더 기쁘게 할 수 없어서 팔아버렸는데 Don Juan은 고집한다.

희대의 여자 편력자 지아코모 카사노바가 각본가 다 폰테를 만나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죠바니의 각본의 일부를 기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신기한 이야기. 극작가 모리에르도 Don Juan을 기초로 한 5막으로 된 희곡 “Dom Juan”을 썼다.

까뮈는 독일 점령군 때문에 알지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아내 Francine과의 연락이 두절된 시절 카자레스를 알게 된다. 자기의 두 연극에서 주연을 한 배우 Maria Casares와의 미친 사랑(L'amour fou)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의 딸 Catherine이 카자레스를 처음 만났을 땐 둘은 침대에 누워 롤리팝을 빨고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그를 지나갔지만 그의 작품엔 여자가 드물다. 역할이 없다. 여자 없는 세상의 질식할듯한 세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있다. “La peste”에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도무지 말이 없는 주인공 Rieux의

바비 인영 (Barbie doll)

김택수(63 네바다)

환히 웃으며 솟아오르는

햇님을 바라보면서

따끈한 커피 한 잔

아내와 함께 즐긴다

수도 없이 반복한

똑같은 옛이야기로

처음인 것처럼

오늘도 웃음꽃을 피운다

하루 수십 번의 똑같은 질문들에

맨 처음인 것처럼 대답해 준다

그녀에겐 첫 질문이니까

머리도 비껴주고 다듬어 준다

웃도 색깔과 스타일에 맞추어

빽과 구두도 색깔 맞추어 골라 준다

얼굴 화장도 도와주고 외출한다

내 아내는 나의 바비인형

人生末年에

나는

바비인형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

행복한 少年이 됐다



註: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어머니의 등장이 고작이다.

십 년간 떠들썩했지만 깊이나 친밀함이 없는, 서로 간의 깊은 존경심이 없는 교류 끝에 싸트르와의 결별한 결별을 한 원인 중의 하나도 여자 때문이었다. Famille에 속하는 Wanda Kosakiewicz를 유혹한 것이다.

죽음 같은 가난 속에서 자란 까뮈는 노벨문학상을 타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 여인들, 명예, 철학, 오래 남을 저작물들, 지하운동가와 기자로서의 사회적 앙가주망…

Don Juan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Pedophile 카사노바도 많은 사회적 문화적 성취를 한 사람이다 (그의 자서전 “Histoire de ma vie”).

성취자에겐 많은 여자가 있다. 카사노바나 Don Juan은 misogynist인가? 여인 결핍 상태에 있던 모네가 misogynist인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용현(40) 동문 별세: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제 3대 회장을 지내신 한용현(48, PMR 전문의)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한 선배님은 얼마 전 후로리다에서 뉴저지로 부인을 위하여 다시 이사 오셨습니다.

박창희(58)동문 별세: 은퇴후 뉴욕시 플러싱에 거주하시던 박창희(58, Radiology 전문의) 동문께서 지난 8월 29일 별세하셨습니다. 9월 3일에는 가족장을 마치고 9월 30일 Memorial service를 가졌습니다.

김은섭(59)동문 별세: 뉴욕시 Elmhurst Hospital에서 평생 외과전문의로 수많은 수술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김동문께서 지난 9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이규명(46) 동문 부인 별세: Mrs. Rhea Chongtaik Lee(1946 졸업하신 이규명 부인)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이 동문은 Virology 전공하여 Cornell University에서 Ph.D를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모교인 서울의대에서(1958-1963) 미생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Virology 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 1963년부터는 25년간 Cornell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NIH Grant를 받아(당시 NCI senior investigator였던 임종식 선배님의 증언) 연구활동도 했습니다. 1988년 은퇴후 2011년 90세로 타계했습니다.

두 분은 졸업하기 1년 전 1945년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2남을 두었으며 자제분들은 New Jersey에서 Medical Oncologist로, Philip Lee는 Leesburg, VA에서 살고 있습니다. Funeral Service는 Robert A. Pumphrey Funeral Home, Rockville, MD에서 8월 10일에 있습니다. 아드님이 임종식 선배님에게 드리는 답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Thanks Dr. Rhim; Your deep condolences are much appreciated and please, we do not expect your presence at the service. Praying for your good health, Philip Lee.”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Web Site 안내

snucmaaus.org
or snucmaaus.com

국내외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eb Site에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글들은 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 주광국(68), Vice Chair 송경민(09)

현 회장, 현 시계탑편집장, 조의열(66) 사진 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7월호(2019년 7월 발행) 1면 회장 취임사에서 김훈을 김현으로
16면 회비납입자 명단중 1965년 이석우를 1962년 이석우로 정정합니다.



권력과 진실을 위한 두 편의 글

달콤한 굴복

엄마와 아이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동발육의 어느 시점에서 아이는 자주성을 꾀하기 위하여 반동적(reactionary)으로 행동한다. 이 시기를 영어권에서는 'the terrible twos'라 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미운 세 살'이라 부른다.

세 살짜리들은 넘치는 생명의 욕구 때문에 엄마에게 대든다. 어느덧 엄마의 애정어린 보호 심리는 지배자의 암박으로 탈바꿈하고 모성애는 머리를 풀어헤친 마녀로 변신한다.

엊그제 나는 보았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줄을 선 엄마와 아이의 갈등을. 계산대 옆에 진열된 초콜릿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욕망과 자식에게 충동심 억제를 교육시키려는 책무에 시달리는 엄마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을. 나는 또 보았다. 초콜릿을 거부당한 아이가 마켓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라 울어대는 장면을. 그리고 나는 목격한다. 보수적인 지배세력이 진보적 쟁취 성향에 의하여 무참하게 패배당하는 현장을.

세 살 때의 번민이 고질병이 되면 깊어서 '운동권'에 뛰어들거나 나중에 반정부 세력에 합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동심리학은 가르친다. 그런 반골(反骨) 기질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정부에 습관상 또 다시 반항할 것인가.

뼈아픈 성숙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녀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싸움보다 자신의 충동심을 자제하는 능력을 얻는 성취감이 더 월등한 삶이라는 절체절명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우리들 이기를 바란다.

현대적 정신분석에서 힘(power)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아이와

서 량(69, 대뉴욕)

엄마가 일시적으로 시사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투쟁 유형이다. 투쟁 상대는 보호자 또는 보호체제다. 투쟁은 대상(object)를 필요로 하고 그 대상은 어느새 적(enemy)으로 변한다. 부모도, 친구도, 당원(黨員)도, 동맹관계도 세상의 모든 대상은 다 적이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적으로 둔갑하는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자기 수련(self training)이 산출하는 창조력의 힘을 손꼽는다. 권력이라는 무거운 한자 어보다 힘이라는 심심한 우리말이 더 어울리는 경우다. 상술이나 정치성을 띠지 않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몰두하는 모든 분야가 여기에 속한다. 학문과 예술이 없는 삶은 개돼지의 삶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 힘의 종류는 사랑의 힘이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자연발생적 힘의 균형이다. 지배(domination)와 굴복(submission)은 서로의 체위를 바꾸기도 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채 유지되어도 얼마든지 좋다. 강력한 지배와 달콤한 굴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남녀 간 사랑은 늘 역동적(dynamic)이다.

네 번째 유형이 정치적 권리이다. 정말이지 힘이라기보다는 권리이요, 권세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과 계급투쟁이 최대로 광범위하고 복잡다단하게 확대된 인간의 집단 현상으로서 정신분석이 개입하기를 꺼리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의 쟁점은 발육과정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이념(ideology)을 내세운 전쟁이면서 권력의 이해상관까지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 이념적 굴복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다.

'power'에 해당하는 고대불어는 원래 '능력'이라는 창조성 있는 뜻이었다. 이윽고 18세기에 국가간의 권력이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 서구적 의식

의 변천사를 여실히 증명한다.

인터넷에서 미운 세 살짜리들을 본다. 초콜릿에 대한 애착심은 일시적 현상이지만 애써 기준 이념을 쌓이고 쌓인 적(敵)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 사건건 누적된 적개심을 표출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늙은 세 살짜리들이 가엽고 권심하다.

진실을 말하고, 도망쳐라!

27살 젊은 나이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장관에 해당되는 병조판서가 됐다가 그 이듬해에 역모 죄로 능지처참을 당한 남이(南怡, 1441~1468) 장군을 생각한다. 그를 음해한 류자광(柳子光, 1439~1512)의 계략을 짚검한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이조 초기를 살았지만 시쳇말로 태종의 외손자인 남이는 금수저, 서자 출신인 류자광은 흙수저 출신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류자광은 여려 왕을 섬기며 파란곡절의 벼슬살이를 하다가 말년에 귀양을 떠나 74살에 장님이 된 후 병사했다. 그는 조선왕조 역사에 출몰한 3대 간신 중 단연 첫 번째로 손꼽힌다.

남이의 시, 북정가(北征歌)를 생각한다. -- 백두산 바위에 칼을 갈아 다닳게 하고 / 두만강 물을 말에게 먹여다 없앤들 /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면 (男兒二十未平國) /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류자광은 이 시 세째 줄의 '평평할 평(平)'자를 '얻을 득(得)'자로 바꾸어 '男兒二十未得國'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획득하지 못하면)이라는 뜻으로 조작해서 왕에게 알린 후 역모 죄를 뒤집어씌워 남이를 죽게 했다.

조작된 진실도 진실인가. 사실(事實)과 현실(現實)과 진실(眞實)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당신과 내가 침거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허위인가.

당신은 사실, 현실, 진실, 모두가 '열매 실(實)'으로 끝나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實'자는 지붕 아래에 산적한 옛날 중국의 화폐 단위였던 조개(貝)를 끝으로 펜 모습이라고 옥편은 풀이한다. 사실도 현실도 진실도

어원학적으로 보면 재력과 권력에 매달리는 인간의 속물근성에서 피어난 이상한 꽃이다. 어쨌든 진실은 실세(實勢)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 엄연한 진리다.

'truth'은 전인도 유럽어의 굳세고 튼튼하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진실을 힘과 세력에 근거를 둔 서구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는 진실과 진리의 차이를 분별하지만 'truth'는 진실과 진리를 동일시하는 점 또한 재미있다.

정신과에서 환자와 의사 둘 중 실권자는 누구인가. 터무니없는 망상이 환자를 지배하는 진실이라면 그런 환자를 현실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어려움이 의사의 고통이다. 두 사람이 당면한 현실에 정신을 집중해야 상담을 위한 좋은 관계가 이뤄진다. 상담은 쇼가 아니다.

진실은 사랑처럼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개 딱딱한 객관적 재료의 나열이다.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언론은 그 잡다한 사실의 포장 속에 진실을 깊이 은닉하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보편적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세월과 진통을 겪는 사연이 안타깝기만 하다.

화가이자 시인이면서 신비주의자,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는 "말로 해서 이해가 되는 진실은 결코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진실은 그만큼 알기 어렵다.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1856~1950)는 "모든 위대한 진실은 욕지거리로 시작된다."고 갈파한다. 유고슬라비아 속담에 듣는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른바 사이다 표현은 또 어떤가.

-- '진실을 말하고, 도망쳐라!'

550년 전 그때 남이 장군은 조선천하를 향하여 욕이라도 내뱉으며 진실을 말한 후 중국 같은 데로 야반도주하여 소중한 목숨을 건질 걸 그랬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서 당신에게 미안하다. 민간설화에 의하면 그는 해외도피는커녕 우리 무속신앙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력(呪力)이 대단한 영혼으로 크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잡귀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장군신이 되어 서울지역에 건재하고 있다 한다.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것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오로라 지수가 높아야 하고 눈이 안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름만 몰려와도 볼 수가 없다.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다.

크루즈 여행은 더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애틀이나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주의 수도인 주노를 조금 지나서 끝나고 다시 되돌아온다.

여행이라 하면 문화여행과 자연여행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알라스카 여행은 자연여행 쪽에 속한다 하겠다. 산을 좋아한다면, 호수나 강이 좋다면, 쭉쭉 뻗은 나무들이나 fireweed 같은 야생화를 보고 싶다면, 특히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것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알라스카는 적격이다. 떠나니는 얼음덩어리도 볼 수 있고 빙하는 사방에 널려 있다.

발데즈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길의 풍경은 산의 웅장함이나 산과 들판의 아름다움에 있어 스위스의 알프스를 무색하게 하고 발데즈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나가서 보는 프린스 윌리암스 해상공원의 경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롭다. 지난 역사가 숨 쉬는 고적 유물들을 보아왔다면 이제 자연의 조화에 도취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알라스카는 적합한 여행지가 될 것이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의 쉼터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은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주의 깃발은 짙은 푸른 바탕에 노란색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13살의 Benny Benson이 도안하여 경연 대회에서 선택되어 채택되었다고 한다. 알라스카의 주 꽃은 이곳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forget-me-not 이다.

알라스카의 동물이라면 곰과 연어를 떠오르게 되는데 Black Bear, Brown Bear, 그리고 흰색의 Polar Bear가 다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살면이라고 부르는 연어의 바른 영어 발음은 째먼이고 다섯 종류가 있는데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으려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다 다르며 강으로 올라올 때는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떼 지어 올라온다. 연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의 흰머리 독수리, 바다의 바다사

자, 땅 위의 곰들도 모두 좋아한다.

알라스카 여행은 육지로 하는 여행과 크루즈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 육지로 하는 것은 앵커리지에서 시작해서 북쪽 페어뱅크스로 올라가는 것과 남쪽 발데즈를 거쳐 서쪽 스워드로 가는 두 코스가 있고 두 쪽을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 경치를 보는 것 외에 북쪽에서는 온천욕, 채금 경험 등을 할 수 있고 남쪽에서는 발데즈에서 시작하는 유람선이 유명하다. 연어 구경은 앵커리지 근처나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 모습은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오로라를 보려면 페어뱅크스 쪽으로 밤이 깜깜해지는 9월에서 3월 사이에 가야 하는데 1월경에는 날씨가 섭씨



아버지의 사랑

서 윤석(68, 베지니아)

나는 며칠 전에 정기적으로 또 위내시경 검사 EGD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위암이다. 개인적으로 9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암 병력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아버지는 67세에 이 병의 진단을 받으셨다. (1968년-1971년) 내가 대구 효목동의 의무사령부 군의학교 교관으로 복무할 때였다. 대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휴가차 나온 나에게 소화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복부에 무엇이 만져진다고 하셨다. 인턴조차도 안하고 군의관이 된 부족한 의사이지만 그래도 촉진을 하며 아버지의 복부를 눌러 보았다. 숨을 드려쉬고 내쉬실 때마다 어린이 주먹 크기의 감자 모양의 둥근 것이 복부 위쪽 중앙, 즉 Epigastric region에 만져지는 것이었다. 대전에 있는 개인 병원에 가서 Barium 을 마시고 Gastrogram 사진을 찍어오셨다. 거의 위암이 분명한 영상이 Lesser Curvature에 부착되어 있었다. 위암이면 즉시 수술이 필요하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의사가 권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다.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청주에 사시던 외삼촌이 혈레벌떡 올라오셔서 그 나이에 수술을 받으시면 큰 일이 나니 다른 치료약이 있다면서 권했다. 청주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사가 지어준 약이라면서 알약 한 봉지를 우선 잡수어 보시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보고 싶으신지 그 약을 즉시 잡수기 시작하셨다. 그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니 아버지 두 손이 조금 부식부석해졌다. 아버지는 벌써 약의 효과가 시작됐다면서 대학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다.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실 것이라면서 이태원에 사는 친구에게 인사나 하고 간다고 나가셨다. 청파동에 사는 큰 형 부부와 나는 그렇게 치료의 방향을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방문하러 가셨던 그 친구분이 우리 집에 혈레벌떡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얘들아 큰 일이 났다. 너의 아버지가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라고 했다. 사실은 그 날 아침 아버지가 그 분의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건널목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사고를 내서 전신주를 받았는데 그 전신주가 넘어져서 지나가시던 아버지의 복부 위에 놓여진 것이었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자동차의 번호를 지나가던 행인이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운전수가 잡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친구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연락이 된 것이다. 온 집안일을 평생 맡아온 형님과 형수님은 나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벌써 필요한 엑스레이 검사와 진찰이 끝났고 다행히 크게 다치신 데는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하늘의 섭리로 우리는 아버지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왕 병원에 들어오셨으니 위암 수술치료를 하자고 권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아버지도 마음을 정하시게 된 것이었다.

당시 집도의는 교수에 민병철(52) 선생님 그리고 Chief Resident에 박건춘(66) 선배님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의(名醫)라고 인정되는 두 분이 아버지를 집도하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였는가. 당시 대구 군의학교 교장이며 나를 후배라고 배려해 주시

던 김종호(55) 대령이 휴가가 거의 끝나서 대구로 통일호를 타고 돌아가는 나를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내 사정 이야기를 들더니 ‘서중위, 내래 염려 말라우, 아버지가 완쾌할 때까지 돌보아드리고 내려오라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두 주일 이상을 퇴원을 하실 때까지 아버지를 간병할 수가 있었다. 군의학교에서 같이 교관으로 일하던 십여 명의 (47기)군의관 동료들(반세기 친구 박수하 박사 그리고 박종일, 박찬훈, 배기원, 이창준, 조석재, 정태수 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좌로부터 손건부, 서윤석, 박수하 47기 군의관들

당시 군대에서 명강의 講義로 알려진 서울의대출신인 임석순(58), 박송규(65) 선배님이 떠난 후 그 바통을 이어 나는 학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량전상자관리, Mass Casualty Management’ 강의를 맡았었고 붉은색, 주황색, 초록색, 검정 카드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할 때 필요한 분류, 치료, 후송의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일을 해 보니 종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 병원에서는 이미 가끔 Fire Drill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어떤 한 해에는 군의후보생들(아마도 48-49-50기)과 한달에 걸쳐 연습후에 2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 정호영 의무사령관, 김종호 교장 그리고 박성빈 제일육군 병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병장에서 전상자 처리 연극도 했다. 후보생이었던 연극반 출신 임공세 동문이



좌로부터 준장 정호영 의무사령관, 대령 박성빈 병원장, 대령 김종호 군의학교장, 중장 채명신 제 2군 사령관

베토벤 5번, 운명을 넣어서 음악을 담당했다. 산부인과 조석신 선배님, 방사선과의 이병철 선배님 등 전국 7개 의과대학 졸업생들과 전문의 과정을 끝낸 분들이 포함되었고 그 해에는 동기 임공세, 신용계 후보생이 들어왔을 무렵이었다. 우리 교관들은 해마다 선후배님들을 포함해서 500여명의 군의 후보생 훈련에 관여했고 그 외에도 육해공군 위생병들의 응급처치 교육도 맡았다.

교관으로 3년째 제대 말년이 되는 해에는 선배님이신 준장 김병극이 의무사령관이었고 전남의대를 나오신 이혜수 대령이 교장이었는데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후인지라 국방부가 발행하게 된 800만 전국 고등학생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전시 응급처치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다. 나는 그 책자의 대량전상자관리 chapter를 썼다. 또 지금은 대전에 위치한 국군간호사관학생들의 해부학 강의도 맡기도 했을 때였다. 김종호 대령과 같이 월남을 다녀온 김의신(66) 선배님이 한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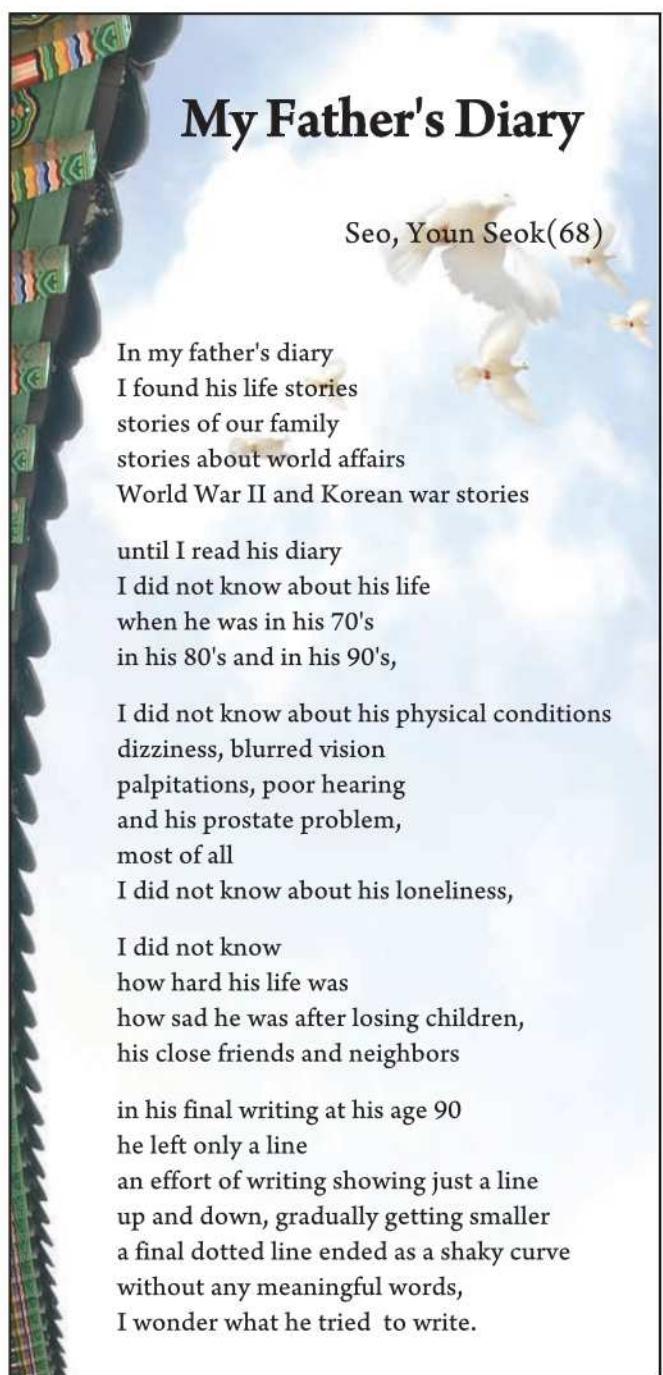
의무실장이었고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행군하던 해군 중대의 중대장에는 반짝이는 단추가 달린 멋진 정복을 입고 출퇴근하던 서좌일(65) 선배님이 그곳에 있었다.

입원 도중에 아버지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예절이 바른 고마운 내 학우들의 병문안을 받으셨다. 병실 문이 많도록 계속 여러 친구들이 찾아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다. 하루하루 이렇게 아버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수술에 임하셨다.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느끼신 것이었다. 수술을 받으신 후 나는 아버지 옆에 작은 포터불 군용 침대를 놓고 자면서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해 드렸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는 집념으로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6남 1녀를 두신 아버지에게는 나는 5남이라 별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아서 평소에 아버지의 눈에 띠지 않았던 편이었다. 아버지는 형들과 동생에게 비하여 나에게만 늘 너무 엄격하셨다. 심지어 나는 특별히 천자문 千字文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만 5-6세에 첫 페이지의 하늘 天 地부터 시작해서 이끼 언 藪 이끼 야 芦가 나오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을 감고 암송하는(큰 형의 감독 하에) 어려운 교육을 받았다. 그 덕분에 나는 한자 밑에 토로 나오는 한글을 일학

년에 입학하기 전에 깨우쳤다. 출장을 가셨다가 아버지가 귀가하시는 것을 보면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싫어서 멀리 도망가기도 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는 늘 어머니한테 더 정을 느꼈다.

막냇동생과는 4년 차이라 내가 아마도 어머니의 젖을 다른 형제들보다 오래도록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대로 어머니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이유 離乳할 때에도 몹시 힘이 들었다고 한다. 영등포 국민학교 2학년 때 6·25사변이 나서 피난을 다녔는데 피난 중이라 신발이 많아서 맨발로 다니던 개천가의 대구 동부 피난 국민학교 등 여기저기 학교를 뛰어 다녔다. 결국 대전 원동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한창이고 덕수국민학교 출신들이 판을 치던 때였지만 어찌 됐던지 하늘의 보살핌으로 나는 입학시험에 그 유명한 30 점짜리 미술문제 <정면에서 본 황소의 머리를 그리라는 박상옥 화가 선생님이 출제하신 것>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시골에서 소를 많이 본 나는 100퍼센트 맞혀서 중학교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했지만 중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나는 즉시 달라졌다. 그리고



My Father's Diary

Seo, Youn Seok(68)

In my father's diary
I found his life stories
stories of our family
stories about world affairs
World War II and Korean war stories

until I read his diary
I did not know about his life
when he was in his 70's
in his 80's and in his 90's

I did not know about his physical conditions
dizziness, blurred vision
palpitations, poor hearing
and his prostate problem,
most of all

I did not know about his loneliness,
I did not know
how hard his life was
how sad he was after losing children,
his close friends and neighbors

in his final writing at his age 90
he left only a line
an effort of writing showing just a line
up and down, gradually getting smaller
a final dotted line ended as a shaky curve
without any meaningful words,
I wonder what he tried to write.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단숨에 끝내야 하고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한 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토록 끝까지 계속하는 특이한 버릇이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꼭 포기를 해야 되면 그 아픔이 남보다 컸다. 나쁜지 좋은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수술을 받게되고 간호를 해 드리다 보니 그 일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간병을 시작하자 아버지에 대한 평소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꼭 도와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성심성의껏 간병한 것이었다. 도와드리려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면 ‘조심해라 넘어지겠다,’ 하시며 병실에서 나를 걱정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이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만 뻥소니 운전사를 고용한 운송업 회사의 사장이 손발이 많도록 비는 바람에 용서하고 타협을 해서 적당한 사과금을 받았다. 그 액수가 병원 경비를 다 청산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치료비가 저절로 생긴 셈이었다. 아버지의 위암 조직은 당시 기초 병리학과 안금환(68년 졸업, 전 삼성병원 병리과장, 현 Stanford 대학 Pathology Professor)교수가 맡아서 했고 확진으로 Adeno-Carcinoma로 판명되었다. 40여년 후에 안교수를 San Francisco에서 만나게 되어 그때 아버지의 조직검사가 암이 분명했는가 다시 물어보니 분명히 암이었다고 하여 우리는 웃었다. 아버지의 위암은 23년 후까지도 재발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1926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법과 학생이었고 남조선 순회 애국강연(동아일보 기사와 사진)을 다니셨다. 그 후 일본 말로 된 재판 기록에 의하면 광주학생사건 3년 전에 있었던 소위 반일 애국학생(전단지 즉 빠라) 사건의 보성전문학교 주동자였다. 서대문 <다음면에 계속>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가

김명원 (68, 남가주)



미켈란젤로(AD 1475~1564)의 '아담의 창조'다

생명의 스파크가 뛰기 직전의 무기력한 육체의 무게와 불룸이 역력하다. 곧 꿈틀하며 차고 일어날 것 같다.

시원히 열린 공간, 하늘을 나는 하느님의 에너지와 속도감이 살아 있다.

옆의 그림은 베를링기에리 (Berlinghieri AD 1228 ~1274 60"x 42")가 그린 제단화(祭壇畫) '성 프란시스'다.

아담의 창조보다 거진 300년 전에 그려졌다. 우중충하고 무당 집에 들어선 기분이다. 명암 처리나 입체감도 확실치 않다. 구도도 대칭적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옛날 그림이라 테크닉이 많이 모자라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미술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만 속단하고 지나치는 것은 Missing the Point이다.

우리 눈에 설익은 이유를 테크닉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미술사의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서양 미술사'의 저자 곰브리치는 "미술사는 기술적인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The whole story of art is not a story of progress in technical proficiency but a story of changing ideas and requirements. - E.H Gombrich)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이라 재주가 없어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이해한다면 테크닉을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에집트의 Fayum의 무덤에서 출토된 초상화들 (BC 50~AD 250)은 그 생



생함과 사실성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를 감탄하게 만든다.

베를링기에리의 그림보다 훨씬 더 오랜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적인 그림이 나왔을까?

에집트의 상류층들은 내세에서도 살아있을 때의 부귀와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싶어 했다.

장인들을 시켜서 죽은 이가 가장 짚고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리게 하여 미이라에 함께 싸서 관에 넣었다.

저세상의 신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실물 그대로 그릴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년 전에도 미켈란젤로를 뺀자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증거다.

화가가 마음만 먹으면.

전혀 다른 두 시대사조가 미켈란젤로와 베를링기에리에게 요구한 과제는 전혀 다른 것일 수 밖에 없다.

미켈란젤로는 문예부흥 시절에 살았다.

천년의 긴 세월을 신의 세계에 억눌려 다 꺼져가던 인간성의 불씨를 되살려낸 것이 문예부흥 정신이다.

죄 많은 인간은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본 때 만든 인간의 모습은 하느님의 그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새로운 각성을 받아들인 시대였다.

그는 하느님의 세계를 그리되 인간 성의 부활을 구가(謳歌) 하며 인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베를링기에리는 이제 겨우 문예부흥의 태동(胎動)을 어렵잖이 느끼기 시작할 무렵의 (Proto-Renaissance) 화가였다.

중세 말기인 당시에는 아직도 엄격한 종교관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 성화에는 감히 작가의 창작



성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선배의 작품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공업이 발전하고 중산층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현실적으로 눈을 떠가고 있는 시절이었다.

중세 기독교의 도그마를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의 풍조가 어느 정도 묵과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성 프란시스를 그려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짚은 베를링기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세 사회에서의 그림의 역할은 대중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Picture Writing'이 고작이었다.

즉 그림은 이야기의 들려리에 지나지 않았다.

베르링기에리는 그림이 Picture Writing의 틀에 갇혀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구차스러운 서술적 설명 없이 그림 자체로서 성 프란시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제작하고 싶었다.

말보다 그림이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감식(鑑識)을 불러올 수가 있음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림 앞에 섰을 때 척 느끼는 분위기 만으로도 "아 프란시스 성인이고나"하고 당장 감(感)을 잡을 수 있는 형상을 창작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이다.

그는 성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그림으로 형상화하느냐 하는 점을 고민해야 했다.

미켈란젤로는 '보이는 것', 즉 영적인 존재를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다.

베를링기에리는 '느끼는 것', 즉 느낌으로 밖에 알 수 없는 영혼을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이다.

추상적인 느낌을 그림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을 그 옛날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참 꿈도 아무쳤다만 큰 골칫덩이를 떠안은 거다.

수도승 프란시스의 외모에 대한 신상 정보쯤은 가지고 있었겠으나 그가 조심해야 할 점은 프란시스를 미켈란젤로처럼 사실적인 인간 그대로 그리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그려야 하니까.

인간을 놓고 인간 같지 않게 그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폐렴으로 90세에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12년을 더 사셔서 87세 때 미국 백악관 구경도 하시고 97세에 영민하셨다. 어머니가 위급하셔서 멀리 미국에서 전화로 부탁했을 때 대전에 사는 모교의 간호대학을 졸업한 미세스 노홍규가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즉시 알려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선뜻 어머니의 침대를 손수 밀고 입원과 입종을 도와주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화가 충남대학 병원장, 내과 교수를 역임한 고 노홍규(68) 학우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는 나를 학창시절 장충동에 있었던 입주 가정교사 자리(전 자유당 시절 강원도 경찰국장 손계천 님 댁)를 알선 해 주었었다. 그러니 나는 그때 그

인간 프란시스의 모습에서 인간의 속성들이 배제된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하늘의 존재들이란 무엇인가.

이미 죽어서 천당으로 간 사람들이나 유품을 떠난 영혼들이다.

즉 귀신이란 말인데 산발(散髮)에 헛발 선 귀신을 그려서도 안된다. 자비로운 귀신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귀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인간과 귀신에 대한 형상들을 마음속에서 해체했다가 재구성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자비로운 귀신을 그리기 위한 베를링기에리의 고뇌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보이는 대로 모델을 스케치해 그렸을 미켈란젤로의 Job은 죽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손발에 나타난 뚜렷한 성흔(聖痕, Stigmata)과 양쪽 6개의 창에 Picture Writing 스타일로 그려 넣은 성인의 행적 등으로 그가 성 프란시스임이 설명은 되지만 그는 성인의 모습만은 서술 방식보다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으로 신도들이 직접 영적인 체험의 경이를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같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게도 없고 감정도 배제한, 그림자도 없는 귀신의 형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적(靜的)인 정면 구도는 겁주는 귀신이 아님을 말해준다.



땅을 반쯤 딛고 서있는 그의 Drop Feet는 프란시스 성인이 막 공중 부양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처럼 설득력 있고 사실적인 성인의 모습이 또 있었을까?

베를링기에리의 마음은 미켈란젤로가 그리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딴 데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의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그림보다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미술사의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그가 미켈란젤로식으로 벌거벗은 성 프란시스를 그려 올렸었다가는 신성모독 죄로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뎅겅 날아갔을 거다.

한테서 또 다시 큰 도움을 이렇게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내 동생 부부가 늘 곁에서 오래오래 보문산 아래 부사동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 주어서 고마웠다.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늘 보시며 사실 수 있어서 두 분은 행복하셨으리라. 누가 무어라 하여도 여러 형제 중에서 가까이 부모를 모시면서 한문漢文으로 시詩를 써온 시인 백송白松, 그 이상의 효자효부孝子孝婦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늘 엄격하셨지만 스파르타식의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높고 푸른 하늘과 같았고 옆에서 조화調和를 이룬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심고 품어 주신 따뜻한 대지大地와 같았다고 하겠다.

Matching/Observership Support 요청

현재 hospital에서 근무를 하시며 한국에서 배출되는 새로운 졸업생들이 미국의 residency matching이나 observership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 선생님은 Green Project Committee (snucmaagp@gmail.com)로 연락을 주시어 서울의대생이 미주에 정착할 기회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링컨 집안 일화

이 회 백(61, 시애틀)

아브라함 링컨은 1842년 Kentucky 은행가이며 노예소유자의 딸인 Mary Todd와 결혼했다. 그의 나이 33세이고 Mary는 24세였다. Mary는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Robert Smith Todd)는 2년 후 재혼, 아홉 아이를 얻었다. Mary의 친어머니의 자식들은 남부군 군의관으로 일한 한 명을 빼고는 전부 북부에 충성했는데 이 군의관, George Todd는 유능한 외과의사였으나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포로수용소에 근무할 때 적군(연방군) 포로를 모질게 다루었다. 특히 흑인인 경우에는 더 심했다. 반면 후처에서 남자식은 한 명만 빼고는 전부 남부를 위해 싸우거나 그에게 충성했다.



Mary and Emilie

이중 이복 여동생 Emilie는 켄터키 주지사의 아들인 Benjamin Hardin Helm과 결혼했는데 이 두 부부와 대통령 부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1861년 시민전쟁(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은 처남 격인 Benjamin Hardin Helm에게 북부 군재정관(paymaster) 직을 제의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남부군 장군으로 싸우다가 테네시주 Chickamauga creek에서 벌어진 Battle of Chickamauga에서 32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Chickamauga는 체로키 인디언 말로 “주검의 강”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너무 상심해서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Selma, Alabama에서 살던 Emilie는 남편이 부상당해 Atlanta에 후송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간호하겠다고 딸과 같이 애틀란타로 달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Selma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진 Emilie는 켄터키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에 가기로 작정하고 전쟁지역 북부인 켄터키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어달라고 남부군 장군에게 부탁했으나 북부 Grant 장군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자 Emilie의 시아버지(John L. Helm)는 Emilie의 친어머니이자 Mary Lincoln의 계모인 Mrs. Todd에게 사정을 호소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본인 또는 당신 딸들 중 어느 하나가 대통령 부인에게 Emilie의 통행증을 얻어달라는 편지를 써줄 수 없겠소?” 하고 이를 알게 된 링컨은 사흘 후 Mrs. Todd가 남쪽으로 가서 그의 딸(Emilie)과 그의 아이가 함께 북쪽 켄터키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행증을 자신이 직접 발급했다. 그러나 Emilie가 북방 경계선 Ft. Monroe에 도착하자 경계선 책임자는 대통령이 발급한 통행증임을 확인한

후 미국정부(연방국)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해야만 통과시킨다는 규정이 있으니 선서를 하라고 요구했다. 남부를 위해 싸우던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을 생각할 수 없었던 Emilie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계선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전문을 발송했다. “그들(Emilie와 그 딸)을 내게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즉시 도달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이 젊은 미망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환대가 두 집안의 슬픔을 덮을 수는 없었다. 링컨 집안은 Willie(셋째 아들)를 작년에 잃었고, Emilie는 남편을 잃었으며 두 형제(Mary와 Emilie) 사이에는 남부를 위해 싸우다 죽은 세 형제가 있었다. Sam Todd는 Shiloh 전투에서, David Todd는 Vicksburg에서, Mary가 가장 귀여워하던 “little” Alexander는 Baton Rouge 전장에서, Todd 집안같이 조상 대대로 소위 border state인 Missouri나 Kentucky 주에 살던 집안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전부 둘로 갈라졌다. 갈라지는 이유는 대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가령 두 집 농장 사이로 경계선이 지나가기 때문이거나 같은 집안끼리 밭상에 마주 앉아 토론을 하다가 제각기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는 그저 그런 하찮은 이유들이었다.

그날 Mary와 Emilie는 단둘만이 앉아 저녁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둘을 갈라놓게 만든 전쟁 이야기는 되도록 피했다. Mary는 화제가 위험한 곳에 도달하면 재빨리 바꿨다. Mary는 Emilie와 같이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Emilie의 딸 Katie와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링컨의 막내 Tad와 Katie가 벽난로 앞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와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자 Tad는 “여기 대통령이 있어”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가리켰다. Katie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는 대통령이 아니야, Mr. Davis가 대통령이지.”하고 Tad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Tad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임을 뽐내면서 “아브라함 링컨 만세.”라고 외치자 Katie는 “제퍼슨 데이비스 만세.”라고 응수했다.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이런 장면을 바라보든 링컨은 둘을 양 무릎에 각각 앉히고는 “태드야 네게는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네 사촌동생에게는 삼촌 링컨일 뿐이야.” 하는 말로 두 꼬마 병정들의 “싸움”을 그치게 했다.

Emilie의 방문은 둘에게 다 슬픔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되었다. Mary

는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않던 자기 경험을 Emilie에게 이야기하면서 Willie가 죽은 후의 슬픔이 Willie의 혼이 매일밤 자기를 찾아오는 것으로 가셨노라고 했다.

Mary의 적지에서 온 여동생과의 정다운 만남은 슬프게도 대통령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끔 만들었다. 링컨은 Emilie의 방문을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당시엔 북쪽 시민이 남쪽 시민과 가까이 하는 것은 처벌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판이었다. 링컨은 12월 14일 이 사실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한 그의 친한 친구 Orville Browning에게 귀띔하면서 당신만 알고 있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Mary의 두 딸인 Daniel Sickles 장군과 뉴욕 상원의원 Ira Harris가 방문했을 때 Mary가 경호원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Emilie를 자기방에 초대함으로써 이 “비밀”은 “탄로”가 나고 말았다.

이들 둘은 링컨에게 극히 충실한 친구이며 Mary를 자주 방문하는 가까운 사이였다. Sickles 장군은 Gettysburg 전투 때 포탄에 맞아 바른쪽 다리를 잃은 장군으로서 다리에 심한 통증(phantom pain)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링컨이 자주 병원에 가 위로를 해 준 인물이다. 그의 부러진 다리뼈와 포탄(cannon ball)은 국립 보건 의학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다. 사족을 좀 불이자면 그는 여러 가지 추문의 대상이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 남자를 쏘아죽인 사건이다. 그의 총에 맞아 죽은 불행한 사람은 하필 미국 국가가 된 시를 지은 Francis Scott Key의 아들로 당시 수도 법무국장이던 Philip Barton Key였는데 재판 결과 temporary insanity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Insanity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다. 그가 무죄판결을 받게끔 변호한 사람이 링컨 내각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Edwin Stanton이었는데 무죄가 된 후 Sickles는 자기 처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자 국민들은 그가 정부를 살해한 것보다는 이 “용서”에 더욱 분노했다는 것이다.



Daniel Sickles and Lincoln

이렇듯 극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Sickles 장군과 Harris 상원의원 둘 국가총사령관 집에 이런 반역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Emilie가 적어 놓은 일기장에 의하

면 상원의원 Harris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자리를 향해 돌아서면서 아주 개선장군이나 된 듯 의기양양한 어조로 “우리는 Chattanooga에서 반란군을 호되게 채찍질했지. 그리고 부인, 그 악당들은 마치 겁먹은 토끼 모양 죄다 달아나 버렸다 는군요.” 하고 빙정거렸다. Emilie는

“Harris 상원의원님, 그것은 첫 번 Bull Run 전투 때 Manassas에서 바로 당신들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지요.”하고 비교았다. Bull Run 또는 Manassas 전투는 북부군이 처음 벌린 전투로서 북부군이 참패한 것을 빛대 말한 것이다. 그러자 대화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상원의원 Harris가 왜 당신 아들 Robert Lincoln은 군에 들어 가지 않느냐고 Mary에게 추궁하자 Mary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면서 “무슨 잘못이 있다면 내게 있소. 그가 좀 더 학교(Harvard)에 남아 있으라고 한 것은 나요.”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명했다. 단 하나 남은 성장한 자식(어린 Tad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마저 잃을까봐 겁나서 그랬다는 진짜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았다. “단 하나의 내 아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소.”하고 Mary를 몰아친 Harris는 다시 Emilie를 향해 “그리고 귀부인님, 내게 만일 아들 스물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전부 반란군과 싸우고 있을 것이요.”하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자 Emilie는 “내게 만일 아들 스물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다 당신을 반대해서 싸우고 있을 것이요.”하고 쌀쌀하게 쏘아붙였다. 이것으로 이 모임은 끝장이 났다. Emilie는 황급히 방을 나갔고 Mary가 즉시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둘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성격이 급한 Sickles 장군은 오늘 일어난 일을 자기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링컨이 “Todd 가문의 자식들은 다 말 버릇이 그렇소.”하고 담담히 Emilie를 변호하자 격분한 Sickles 장군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애당초 저런 반역자를 당신 집에 들여놓은 게 잘못이요.”하고 링컨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아니 장군님 말씀 좀 삼가하시오. 내 아내와 나는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정하는 습관이 있소. 우리는 이런 일에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소!”하고 응수했다.

이런 불쾌한 대결을 목격한 Emilie는 링컨과 Mary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떠났다. “아 Emilie, 우리는 이런 악몽에서 언제나 헤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Mary의 탄식을 들으며.

참조문헌

- Team of Rivals Doris Kearns Goodwin Simon and Schuster 2005
- House of Abraham Stephen Berry HOUGHTON Mifflin Company 2007
- The Trial of Mrs. Abraham Lincoln Homer Croy, Duell, Sloan and Pearce 1962

농담 골목

나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1955년에 졸업하고, 병리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그때 대학병원에서 1주일에 한번씩 임상병리 학회를 했다. 나는 그 모임에서 병리학교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루는 내가 병리학적 조직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가 꽤 크다고 했다. 그러니 임상의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이 별로 크지않다.”고 반대를 했다. (노용면)

내가 미국에 있는 한인의사회 회장을 할 때, 한인 의사 8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하루는 평양시에서 기차를 타고 김일성 수상의 별장이 있는 함경남도 해변가로 갔다. 기차에서 안내원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 아이가 머리를 아파한다고 했다. 기차에서 내려 해변가로 가니, 그 안내원이 내게 미국돈 1불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니, 그가 물속에 던져놓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다. 평양시로 가는 기차속에서 그 안내원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 아이의 건강이 매우 좋아졌을 거라 했다.

내가 45년전에 시계탑을 시작했을 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글은 싫지 않도록 했다. 위에 쓴 글은 시계탑이 정한 법에 잘 들어 맞는다. (노용면)

술 취한 남자

여자: 경찰관님, 어떤 남자가 절 자꾸 따라와요. 술 취한 것 같던데…

경관: (여자 얼굴을 한번 훑고 보고 나서) 제 생각에도 그 남자가 술 취한 것 같은데요. (이덕승)

다시 태어나도

중년 남편이 마누리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이 될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누라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늘 당신 생각만 해?” (이덕승)

키스의 대가

남편과 함께 영화관에 간 아내가 러브 신을 보면서 짜증을 냈다.

아내: 여보, 왜 저 남자 배우처럼 나에게 키스 해 주지 않죠?

남편: 여보, 저 배우가 저렇게 키스를 해 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 줄이나 알기나 해? (이덕승)



아해 김태형 (63, 조지아)

마라톤과 흡연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매년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다. 거기에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60만 명이나 된다. 한 개비당 12분씩 수명을 단축한다니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은 일 년에 2개월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다. 이는 일생의 평균 흡연 기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 당 13-14년의 수명에 해당된다. 끔찍한 얘기다. 더욱이 담배는 폐활량을 저하시키므로 분초를 다투는 마라토너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15년 전 춘천 마라톤 때의 일이다. 한 30대 초반의 청년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 20km까지 순조롭게 달려나가다 청년이 갑자기 내 앞에서 멈춰버리는 게 아닌가! 혹시 다리에 쥐라도 났나? 돌봐 주려고 다가가 보니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내 하늘로 연기를 냅다 뿐이며 나더러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한다. 그때 지극히 흡족해 하던 그의 얼굴 표정은 지금도 내 뇌리에 씹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담배는 중독성 마약이라고 부르나 보다.

Sir Roger Bannister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이 1 mile 경주의 4분 장벽을 처음으로 무너뜨린 영국의 Roger Bannister 선수이다. 그가 1954년 25세 때 세운 기록은 3분59초4였다. 나는 1997년 그가 달렸던 Oxford 대학 400meter track을 찾아 당시의 학성을 궁금으로 들으며 오랜 상념에 젖어본 적이 있다. 경기 직후 기진맥진 쓰러졌을 때 세계기록 달성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은 “It's the ability to take more out of yourself than you've got” 이었다.

나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마라톤에서 해설을 맡았었다. 이봉주 선수가 남아공의 Josia Thugwayne에 3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언제나 혼신의 힘을 쏟아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 (Modest Mussorgsky, 1839-1881)는 19세기에 활동한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이끈 작곡가들 중 한명이다. 그는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혈관에는 농부의 피가 흘렀다. 아버지 쪽 증조할머니가 농노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은 러시아의 역사, 설화나 구전동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많다. “러시아 민중들의 정신, 그들의 삶의 방법 등은 내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에게 6살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며 9살에는 리스트나 존 필드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 할 수 있었다. 13세에 근위대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신입생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대신 생도들이 외출을 할 때는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조장했으며 아마도 무소르그스키의 음주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856년 17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소위로 임관하여 귀족으로 구성된 황제 친위대의 최정예 연대에 배속되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육군 병원에 근무하면서 동료 장교였던 22세의 알렉산더 보로딘과 사귀었다. 보로딘에 의하면 무소르그스키는 예의바르고 귀족같은 품위가 있는 미남 장교였는데 그가 병원장의 초대를 받

부으라던 Roger Bannister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왜 이봉주는 그 3초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왜 희랍의 피디피데스처럼 또는 바르셀로나에서의 황영조처럼 혼신의 힘을 쏟아불지 않았을까? Sir Roger Bannister의 명언 하나를 더 소개한다. “Sport, like all life, is about taking risk”. 마라톤 선수들이 음미해 볼 말이다.

마라톤에 도전하지 맙시다.

미국에선 5km는 full marathon이든 거리에 관계없이 도전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선 어느 race 건 도전이라는 말을 애용한다. 도전은 등산에 비유하면 주말에 북한산 몇 번 올라 본 사람이 갑자기 에베레스트산 등반에 나서는 것과 같다. 달리기도 5km 경주에 한두 번 참가한 뒤에 full marathon을 완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도전이다. 이러니 마라톤 도중에 걷지 않을 수 없고 아주 낙오하거나 진행위원이 다 떠난 뒤에 외롭게 결승지점에 들어오게도 된다. 무모한 도전은 또 간간히 발생하는 경기 도중의 돌발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마라톤은 도전하는 경기가 결코 아니다. 그 준비로 최소 주 4회 정도 10-20km 씩은 달려야 한다. 42.195km의 마라톤은 몸이 평소에 잘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전이 아닌 일상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경주다. 모두들 마라톤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참가하기를 바란다.

이 핑계 저 핑계

달리기 대회에 자주 나가다 보면 으레 자기의 라이벌 한 두 명은 있다. 라이벌에게만은 뒤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달리게 된다. 이런 선의의 경쟁의식이 기록을 향상시키고 달리는 즐거움도 높여 준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패배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것은 생각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 내곤 한다. “사실은 말이야, 지난 며칠 야근을 했거든! 갑자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하도 피곤해서 그래!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났거든! 응, 나는 무릎을 다쳐 출창 걸었단다구!” 어떻게든 승자의 기쁨을 깎아내리며 패배의 아픔을 달랜다.

더 가관인 것은 자기의 라이벌을 이기고 도착하고 자기의 기록도 단축했을 경우에 내뱉는 말들이다. “물론 요번에 한 20분 더 기록을 단축했을 텐데 어제 밤 sex를 해서...” 연구 결과를

아 참석한 연회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부드럽고 고상한 자세로 오페라 음악을 연주를 하면 실내의 부인네들이 그의 자태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홀딱 반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무렵 동료 장교 체자르 큐이를 통해 작곡가 글린카와 만났으며 발라키레브도 알게 되었다. 발라키레브는 무소르그스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제한적으로 작곡법도 가르쳐주었다. 이런 경험 말고는 작곡에 대한 정통적인 교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작품들은 후에 다른 작곡가들에 의해 편곡된 후에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사귄 작곡가들이 러시아 음악을 작곡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러시아 음악 ‘5인조’라고 부른다. 무소르그스키, 발라키레브, 림스키-코르사코프, 큐이, 보로딘을 말한다. 낭만주의 음악이 풍미한 작곡계에서 러시아 정서를 살린 대표적인 러시아 작곡가들인데 원래는 이공계 전문가였던 사실이 흥미롭다. 무소르그스키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였고 발라키레브는 음악 교육은 받았으나 원래는 수학자 보로딘은 화학자, 림스키-코르

보면 마라톤 전날 부부관계가 기록을 저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mistress와 보낸 경정의 밤 다음 날 아침의 기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미국의 유명한 한 단거리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Sex가 경기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도중에 sex를 한 경우일 뿐이다.

유인원

유인원이 600만년 전 숲에서 초원으로 이동해 처음에는 초식동물 집단으로 보행하며 살았다. 200만년 전 쯤 동물포획을 시작하며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입장에서 달리기가 필수 요건으로 되었다. 후에 동물 사냥에 차차 도구(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달리기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졌다. 일만년 전쯤 농경시대의 도래로 인간의 달리기의 능력은 더욱 퇴보해 왔다.

오늘날 Kenya, Ethiopia, South Africa 등의 선수들이 마라톤을 석권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조상들이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고, 문명의 이기 를 덜 받아 보행과 달리기를 더 오래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금 아이들이 특히 한국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나 아이폰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자라서 걷기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다. 한국의 마라톤 장래는 암담해 보인다.

맥박

달리기 선수의 fitness를 측정하는 요소로 체중, 배 둘레, 일정시간 질주거리와, 단위 시간 내의 최대 산소 소모량 등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타고난 신체 조건이 다르므로 몸무게와 배 둘레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fitness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산소 소모량 측정 등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의료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맥박을 스스로 측정해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일상의 활동, 스트레스 그리고 커피 등의 섭취가 맥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침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맥박을 측정해야 한다 (resting pulse).

맥박에 대한 이론은 달리기에 관한 많은 명구를 남긴 Dr. George Sheehan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맥박수가 80-90인 사람은 활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명청이들이고, 70인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은 못되고, 60-65이면 활기있는 삶

사코프는 해양학자. 그리고 체자르 큐이는 공병장교로 사관학교에서 축성 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제정 러시아 군대의 장군까지 진급했다.

무소르그스키는 5인조 가운데서도 가장 특출했으며 러시아 음악을 통하여 작곡으

로 표현하는 데 뛰어났다고 평가된다.

무소르그스키는 임관 2년 만에 전역했다. 민감하고 낭만적인 성격으로 인해 군인으로 살기 보다는 작곡에만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원하지 않게 하급 관리직을 얻었는데 그는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1863년 황제가 농노제를 폐지하자 농장 수입이 줄어 가산은 급격하게 기울어졌으며 생계를 고리 대금업에 의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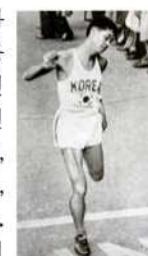
1865년 어머니가 별세하자 우울과 불안증이 엄습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교향시 ‘민동산에서의 하룻밤’을 완성시켰지만 발라키레브가 연주 지휘를 거부하자 그는 더욱 심하게 알코올 폭음에 빠져들었다 술중독은 쉽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달리기로 맥박수를 낮출 것을 권장했고 마라톤에 참가하려면 맥박수를 60미만을 목표로 단련하기를 권장했다. 자신은 맥박을 48로 유지했다. 사실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은 맥박수 50을 넘지 않으며 30 미만인 선수들도 간혹 있다. 맥박을 60 미만으로 유지하면 인생에서 어떤 도전도 당당하게 맞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Dr. Sheehan은 강조했다.

마라톤과 유교사상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라톤 선배로는 1947년 보스턴에서 당시 세계기록인 2시간 25 분 39초로 우승한 서윤복 선수다. 1936년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과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일본은 손기정 등 마라톤 선수들의 장거리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다.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라면도 없던 시절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상상하면 몸이 아리다. 우승 당시 그의 키는 154cm, 몸무게 52kg, 그의 달리는 모습을 당시 보스턴의 신문은 “한 가닥 낙엽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감독 겸 선수로 함께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경기 직전 기권한 것을 보면 이들이 자라서 걷기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다. 한국의 마라톤 장래는 암담해 보인다.

또 한 분 내가 존경하는 마라톤 선배는 1950년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함기용 선수다. 1950년은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외국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1, 2, 3등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을 차지했다. 당시 우승한 함 선수의 우승 소감이 나를 울린 함기용 선수다. “제가 우승해서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챔피언이고 선배이신 최윤칠 선수보다 앞서 들어와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것이다. 당시 최윤칠 선수는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고 대학교 2학년이었던 반면 함 선수는 양정고보 졸업반 학생이었다.



다. (작곡가의 생전에 이 곡은 연주되지 않았다.)

흔히 그의 음악에는 슬픔이 많이 섞여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것을 예술가의 민감한 감수성이라고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일생 폭음에 의한 우울증에 시달린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 것이다.

1869년 그는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보리스 구다노프’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대표적 문호로 꼽는 푸시킨의 연극을 대본으로 했다. 1871년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마린스키 제국 극장은 오페라에 주연 여배우가 없고 내용에 연애가 없다는 이유로 상연을 거부했다. 1872년 오페라에 연애하는 주연 남녀배우를 삽입한 후에 초연에 성공했다. 그러나 러시아 밖에서는 이 거작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죽은 다음에야 1908년 친구였던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작품을 여러 군데 고친 다음 파리 오페라에 상연한 다음 서구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74년 가까웠던 친구 화가 빅토르 하르트만이 사망하자 우울증에 빠졌지만 이를 펼치고 피아노 조곡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했다. 이 곡 역시 1922년 프랑스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공연한 다음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Prince Edward Island (PEI)와 Nova Scotia(NS)는 이곳 뉴저지에서 차로 가 볼만한 거리에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도 생겨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차에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과 한번 추진해 보기로 했다. 우리 나이에 장거리 여행인 만큼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고 일정 조율과 예약은 내가 맡기로 했다. Guide books, map, internet과 더 필요한 정보는 전화를 걸어서 얻었다.

Canada의 New Brunswick (NB)과 Nova Scotia(NS) 사이에 있는 Bay of Fundy는 세계에서 간만의 차(평균 50ft)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관광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Hopewell Rocks와 Tidal Bore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Bay of Fundy는 funnel 모양으로 되어있고 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특수 지형에 “swing effect” (resonance라고도 함)로 하루에 160 billion ton의 바닷물이 두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수량이 Grand Canyon을 채우고도 남고 전 세계의 강물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한다.

Hopewell Rocks Park는 PEI로 가면서 조금만 돌아가면 되었고 가는 길에 Moncton에서 Tidal Bore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tide 시간에 맞추어서 날짜를 정하는 일이었다.

Hopewell Rocks는 high tide 때는 대부분 물에 잠겨있지만 low tide에 바닷물이 나갔을 때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오랜 세월 풍화작용과 조류 침식으로 조각된 기암절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 하루 두 번씩 high와 low tide가 있지만 우리 일정과 Park 입장시간 (9am-5pm)과 맞추어야 했고 Full Moon과 New Moon 때 간만의 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했다. (또 한 가지 9월 16일부터는 peak season이 지난 shoulder season으로 우리 예정에 포함된 골프코스 Cabot Links의 Green fee도 내려간다)

우리 일행, Dr. 신두식(64), Dr. 육순재(69), Dr. 조창일, 우리 부부 8명은 차 2대로 9월 13일 추석(Full Moon) 다음날 14일 출발 Bangor, ME에서 하룻밤 자고 9월 15일 정오쯤 High tide (1:42pm, Atlantic time)은 EST보다 한 시간 빠르다)에 맞추어 Hopewell Rocks Park에 도착, 구경하고 점심 후에 다시 내려가서 물이 반쯤 나갔을 때 다시 구경할 수 있었다. Park 입장권 (senior CD \$8)은 Online으로 미리 구입 할 수 있고 2일 동안 사용 할 수 있다. 근처 Hopewell Rocks Country Inn에서 하룻밤 지내고 9월 16일 아침 low tide (8:36am)에 맞추어 다시 바닷가로 내려갔다 (20-30분 정도 걸어 내려가거나 Shuttle을 이용하면 올라올 때 편하다). Low tide를 기준으로 물이 빠지는 3시간 전부터 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3시간 동안까지 걸어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다. Hopewell Rocks는 바위기둥 꼭대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Flower Pot Rock”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나중에 새로 자라난 것이 아니고, 침식작용으로 바위기둥들이 육지에서 갈라져 나올 때 본래 있던 나무들이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



Hopewell rocks at High Tide

오전 구경을 마치고 예정대로 PEI로 향했다. 가는 길에 Moncton의 Bore View Park에서 12:03pm에 예정된 Tidal



Prince Edward Island and Nova Scotia 여행기

최 순 채(66, 대뉴욕)

Bore를 구경할 계획이었다. 예측된 시간 보다 일찍 올 수도 있으므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거의 예측된 시간에 하루에서 “쏴아~”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잔잔한 강물 위로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일분도 안되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한 친구가 Surf Board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26km(16mile)까지 타고간 기록이 있다고 한다. Tidal Bore는 강물이 얕고 지면이 평평하고 썰물 때 해수면 보다 높아야 되는 조건이 맞아야 생기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bore는 중국 상해 남쪽 Hangzhou (杭州) 시를 지나가는 Quiantang 강에서 생기는 것으로 높이가 30ft, 속도가 25 mph에 이른다고 한다. Moncton에서 한시간쯤 후 캐나다의 New Brunswick과 PEI를 연결하는 길이가 8mile 되는 Confederation Bridge를 건넜다 1997년 개통된 이 다리는 겨울에는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The World’s Longest Bridge over ice-covered water”라고 한다. PEI는 서북쪽의 New Brunswick과는 이 다리로 연결되고 동남쪽의 Nova Scotia는 ferry를 타고 가야 되는데 Toll은 다리를 건너 가던 ferry를 이용하던 PEI를 떠날 때 CD \$79만 내면 된다.



Hopewell Rocks at Low Tide

오후 2시쯤 Cavendish에 도착 Anne of Green Gables Heritage Place에 들렸다. 1908년 Lucy Maud Montgomery가 발표한, 영리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빨간 땅기머리 고아 소녀 Anne Shirley가 노총각, 노처녀 남매의 보호 하에 PEI 농가에서 자라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해 가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 classic children’s novel은 1970-80년대에 TV series와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PEI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지금도 큰 관광버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Gift shop에서 이 소설 이야기에 나오는 Raspberry Cordial을 사서 마셔보았는데 cordial이 의미하는 liqueur는 아니고 Raspberry 향이 나는 soda였다. Anne이 자기 “bosom” 친구 Diana에게 Raspberry Cordial인 줄 알고 Currant wine 한 병을 다 마시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하게 했기 때문에 Diana 어머니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크게 야단을 치는 내용도 재미있다.

Cavendish에서 그날 저녁 숙박 예약된 Rodd Crowbush Golf & Beach Resort에 가는 길에 New Glasgow Lobster Supper에 들려서 저녁을 먹었다. 3lbs Lobster를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데 맛도 있고 appetizer로 steamed mussel을 bucket으로 갖다 주고 salad, clam chowder soup, 식사 후 dessert까지 돈도 더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갖다 주는 후한 인심이었다.

9월 17일 아침 8시에 tee off, PEI에서 가장 좋다는 The Links at Crowbush Cove에서 골프를 쳤는데 course

특징인 것 같았다. “Killiecrankie”라 불리는 Par-5 No.7 hole은 Golf Advisor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Par-5 hole 중의 하나라고 한다. 골프가 끝나고 양쪽에 바다를 끼고 경치 좋은 절벽 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Keltic Lodge에 check in 했다. 저녁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buffet dinner였는데 값도 비싸지 않고 음식도 맛있었다.

다음날 21일은 NS 서남쪽 Digby를 향해서 가기 위해 Windsor, NS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 날이었다. 가는 길에 Tidal bore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Fundy Tidal Interpretive Center at Maitland에 들렸으나 조그만 소용돌이 정도만 보고 실망했고 Fundy Discovery Center, Truro에서 규모가 작아 낮은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는 것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9월 22일 오전에 Digby, NS에 도착 Digby Neck과 Long Island area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또 하나 S. Thompson이 설계했다는 Digby Pine 코스에서 골프를 쳤다. 흥미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그린이 있는 Par-4 No. 11 hole(270yd)인데 1936년 여름, Babe Ruth가 “Bludgeon(몽둥이)”라 부르는 Driver로 처음으로 그린에 공을 올렸는데 “Are you the next?”라는 풋말이 불어 있었다. 야구만 잘 한 것 이 아니라 골프도 잘 친 모양이었다. Digby, NS는 Scallop capital of the world라고 불릴 정도로 scallop이 유명한 곳이고 특히 Churchill Restaurant에서 유명한 chef(Dale Nicols)이 준비한 scallop 요리를 먹어 보아야 한다고 해서 미리 예약한 대로 찾아가 먹어보았지만 scallop 자체가 별 특징 없는 재료인 때문인지 맛은 그저 그랬다.

그날 밤은 “Come from Away”라는 흔치 않은 이름을 가진 바닷가에 있는 B&B (home cooking 같은 아침식사가 좋았다)에서 지내고 아침에 St. John, NB으로 가는 ferry를 타기 위해 부두로 갔다. 본래는 Yarmouth, NS에서 CAT이라는 ferry를 타고 Bar Harbor, ME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Bar Harbor Ferry terminal 공사 지역으로 배가 운항되지 않고 있었다. St. John으로 가는 “Fundy Rose”라는 큰 배는 2000년에 대우조선에서 건조한 Made in Korea였고 배 안에서 점심때 먹은 Hot lobster 샌드위치는 정말 맛이 있었다. 2시간 15분 후 St. John에 도착 ferry terminal에서 멀지 않은 “Reversing Fall”에 들렸다. 절벽 사이의 깊은 계곡을 흘러내리는 강물이 밀물이 들어올 때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큰 소용돌이가 생기고 격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Cabot Cliffs Course

다시 국경을 넘어 Augusta, ME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뉴저지로 돌아왔다. 국경임국소에서 직원이 여권을 돌려주면서 “Welcome Home!”이라고 말해 주던 것이 어쩐지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다. 10일 동안의 2,400mile이 넘는 장거리 여행이었지만 날씨가 좋아서 비도 맞지 않고 사고 없이 돌아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일행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한 Prince Edward Island과 Nova Scotia의 이번 여행이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각자

노영일(68, 시카고)



창밖에 비가 내린다. 모처럼 세웠던 주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TV를 틀었다. 위성방송 EBS에서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의 일생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몇 번째 재방송인듯 한데 나는 처음 보는 것으로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였을 뿐 아니라 문필가였고, 특히 여성해방과 여권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가 최근에 재조명되는 작가이다. 나는 그녀의 예술이나 도덕적인 평가보다 그녀의 일생에 더 흥미를 느꼈다.

나혜석은 1896년 용인 군수 나기정의 2남 3녀 중 둘째딸(넷째)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다. 총기와 미모를 겸하여 진명여고를 일등으로 졸업하고 당시 일본유학중이던 오빠의 권유로 동경여자 미술전문학교 서양화부에 진학한다. 유학중 천재 시인 최승구를 만나 첫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최승구는 고향에 집안에서 정해준 처가 있었으며 폐병환자였다. 양가의 반대가 격렬했다. 최승구의 집안에서는 본처와의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청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하였다. 물론 대갓집인 나혜석의 집에서는 유부남에 폐병까지 앓고 있는 최승구와의 결혼은 절대 반대였다. 최승구의 병이 악화되어 고향인 전남 고흥으로 요양을 갔다. 나혜석이 고흥까지 병문안을 갔다가 동경으로 돌아온 날 최승구는 죽었다.

오빠의 소개로 게이오 대학 법학과에 유학중이던 김우영을 알게 되었다. 김우영은 상처한 전처와의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다. 나혜석은 그의 끈질긴 구애를 거절한다. 나혜석은 실명, 필명, 가명으로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썼다. 첫사랑의 상처를 안은 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정신여고 미술선생이 된다. 과년한 딸을 빨리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의 집요한 강요를 피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애정 없는 생활을 지켜본 그녀는 어머니와 다른 인생을 살고자 했다. 춘원 이광수, 염상섭과도 교제가 있었다.

나혜석은 3.1 만세사건에 연루되어 5개월간 감옥살이를 한다. 그때 김우영이 변호사로서 나혜석을 도와준다. 이를 계기로 석방된 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 김우영은 나혜석의 개성을 이해하는 훌륭한 외조자로 이 결혼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결혼 후 조선과 일본에서 유수한 미술 전람회에 입선, 특선을 하고 개인전도 하였다. 3남 1녀의 자식들도 두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구미 여행을 떠난다. 만주, 러시아, 유럽, 미국을 둘러보고 나혜석은 파리에 머물며 미술공부를 하고 김우영은 베를린에서 법학공부를 하게 된다. 파리에 가기 전에는 사실적인 수법으로 인물과 풍경을 그렸으나 파리 체제중 후기 인상파, 야수파, 표현파의 영향을 받아 화풍이 많이 바뀌었다.

파리에 체류할 당시 천도교령 최린을 만난다. 이는 그녀의 인생을 뿌리째로 흔들어 놓았다. 그는 박식하였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최린과의 만남이 잊어지고 함께 유럽여행까지 하며 불륜의 관계로 빠져 들어갔다. 최



린은 나혜석에게 김우영과 이혼하면 자기가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귀국 후 최린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김우영은 이혼을 강요한다. 2년간의 별거 후 마음이 달라지면 재결합한다는 조건부로 합의 이혼을 한다. 그러나 김우영은 곧 재혼을 한다. 나혜석은 최린을 찾아갔으나 출세욕에 사로잡혀있던 그로부터도 버림을 당한다. 그는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고 최린을 정조 유린죄로 고소를 하였다. 이것은 당시 대형 스캔



들로 신문에 보도 되었다.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나혜석은 문란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나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정이 두터워 지리라 믿었을 뿐이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남녀 연애관의 연장이었으며 조선사회에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자유연애관이었다.

그녀의 개인전은 파리를 날리고 그림을 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그녀의 그림을 샀던 사람들도 그녀의 그림을 떼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집에 불이 나 소장했던 작품들이 다 불타 버렸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친구인 수덕사 일엽 스님을 찾아가 중이 되려 하였으나 그도 받아주지를 않았다. 이혼 후 줄곧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집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기도 했고 큰딸 나열을 만나려 개성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우영이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절대 만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파킨슨 병에 중풍까지 걸려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행려 병자로 쓰러져 죽었다. 그녀의 나이 53세 때였고 그녀의 유해는 어디로 갖는지도 모른다.

나혜석의 수많은 글들 속에서 그녀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감명을 받은 듯하다. “인형의 가(歌)”라는 시에서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노라를 놓아 주라고 하였다. 젊은 날의 노라 부인을 열망했던 그녀는 현실 사회에서는 자식을 두고 빈 몸으로 쫓겨난 이혼녀에 불과했다.

자서전적 단편 “경희”에서는 “계집이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라 하는 아버지의 말에 “그것은 옛날 말이야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하는 것은 무엇이던지 하는 세상이야요.”라고 했다. “섣달 대록, 초하룻날”에서 “명절은 여자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고통스러운 날”이라 했다.

“현숙(玄淑)”에서 “우리 둘은 반년간 비밀 관계를 가져요. 반년 후 신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여성을 억압하고 옥죄는 족쇄이고 이혼의 비극은 여성해방으로 예방해야 하고 시험결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우영과의 결혼조건으로 “일생을 두고 지금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을 것, 그리고 신혼여행을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로 가서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김우영은 이를 모두 수락했다. 이로 인하여 김우영은 남자답지 않은 졸장부로 여겨졌다.

“모(母)된 감상기”에서 “아이는 엄마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하였다.

“신생활에 들면서”에서 “여성의 정조는 취미일 뿐이지 도덕이나 법률이 아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 성욕도 죄악이 아니라 보편적당한 가치”라고 했다.

“이혼 고백서”에서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와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흘뜨려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외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겼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3개월 예정이던 구미 여행이 1년 9개월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식끼들을 팽개친 귀신들”이라 했다.

편집회 초록

2019년 9월 28일 오후 2시 편집회가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에서 열렸다. 참석한 편집위원은 허선향, 서윤석, 서량, 서인석, 이선희, 서귀숙, 황창근 사장이며 첫 번째 의제로 시계탑 문집 제6호의 발행에 대하여 의논했으며 황사장이 힘들어도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2020년

4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Convention 때까지 책이 나오도록 추진해 볼 계획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될 원고는 한 작가당 시 2편 수필 혹은 다른 종류의 산문은 1편, 그 선택과 기부금 선전은 편집위원장이 처리할 것이다.

둘째로 지난 편집회에서 가결된 사항인 <편집회는 45년간 이어온 전통을 자랑하는 동창회의 얼굴이며 동문들과의 대회의 광장이다.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기관과 같다. 때로는 입장이 예민한 개인 정보와 비밀이 보장되는 원고를 다루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 없는 편집위원들만이 참석할 수는 회합이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으로 일단 영입되면 자퇴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사항을 재확인을 했다. 이 사항을 편집회 후에 같은 장소에서 3시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낙을 받았다.

김명원, 박은경, 나두섭 세 편집위원들은 작품을 보냈고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했다.

원로 편집위원 서량 시인은 이날 밤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와 함춘문예전에서 10월 9일에 William Carlos Williams 의사 시인에 대한 특강을 맡아서 편집회의 후한국으로 서둘러 출발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편집회는 2020년 1월 11일 토요일로 정하고 이사회를 주관할 이성길 회장과 기념 활동 후 회의를 마쳤다.

-지면관계상 현재되던 온기철(71) 동문의 “한국의 왜 유일한 분단국가 일까요” 이원택(71) 동문의 “인격장애”을 심지 못하였습니다. 저자와 이 글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둘째 아들 김진은 서울 법대 교수였다가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에서 대학교수를 지냈다. 그는 노년에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가”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아버지 김우영이 당한 고통과 자기 소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수치감 등을 썼으나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조금만 절제를 하였으면 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번은 허름한 노인이 학교에 찾아와 “내가 네 어미다 하고 울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이 달아나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고 수업종이 울려서 교실로 돌아갔다”고 했다.

한은 총재를 지낸 셋째 아들 김건은 고향인 수원에 나혜석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주역을 맡았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도덕률에 묶여 금기처럼 묻혀있던 나혜석의 재평가가 활발해진 것은 최근 20여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나혜석 전집” 등 많은 출판물들이 나왔다.

나혜석은 시대를 앞서 살았다. 그래서 모진 역풍을 맞아 쓰러졌다. 대개 혁명가, 선구자, 선각자, 위인들은 당대에서 모진 삶을 사는 것이 보통이다.

여류 소설가 박경리는 운명하기 몇 달 전에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훌가분하다.”

역시 여류 소설가인 박완서는 노년기에 이렇게 썼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나혜석이 불같은 삶을 살다가 폭풍에 사라졌다면, 박경리나 박완서는 조용한 인생을 물 흐르듯 (上善若水) 살다가 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인생이 바람직할까.

창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린다.





歸去來辭 陶淵明 귀거래사 도연명

정관호(63, 대뉴욕)

원문: 歸去來辭 六朝 陶淵明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
既自以心爲形役，奚惆悵而獨悲
悟已往之不諫，知來者之可追
實迷途其未遠，覺今是而昨非
舟遙遙以輕，風飄飄而吹衣
問征夫以前路，恨晨光之熹微
乃瞻衡宇，載欣載奔
僮僕歡迎，稚子候門
三徑就荒，松菊猶存
携幼入室，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眄庭柯以怡顏
倚南窗以寄傲，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門雖設而常關
策扶老以流憩，時矯首而遐觀
雲無心以出岫，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請息交以絕遊
世與我而相違，復駕言兮焉求
悅親戚之情話，樂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將有事於西疇
或命巾車，或棹孤舟
既窈窕以尋壑，亦崎嶇而經邱
木欣欣以向榮，泉涓涓而始流
羨萬物之得時，感吾生之行休
已矣乎，寓形宇內復幾時
曷不委心任去留，胡爲遑遑欲何之
富貴非吾願，帝鄉不可期
懷良辰以孤往，或植杖而耘耔
登東皋以舒嘯，臨清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樂夫天命復奚疑

해석: 돌아가리로다.

육조 시인 도연명

돌아가리로다. 전원이 황폐해지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 이미 마음이
몸을 위해 부림을 받았거늘, 무엇 때
문에 탄식하며 흘로 슬퍼하는가 / 이
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
았고, 장래의 일은 올바로 할 수 있음
을 알았도다, / 진실로 길 잘못 들어

멀어지기 전에, 지금이 끓고 지난날은
잘못이었음을 깨우쳤네 / 배는 흔들흔
들 가벼이 출렁이고, 바람은 한들한들
웃짓을 날리네 / 길 가는 사람에게 갈
길을 물으면서, 새벽빛 어둑어둑함을
한하도다 / 마침내 집문을 바라보고,
기쁨에 달려갔으니 / 머슴아이들이 반
겨 맞아주고, 어린 자식들 문 앞에서
기다리네 / 마당안 작은 길엔 풀이 우

거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
고 / 아이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니,
술통엔 술이 가득하네 / 술단지 끌어
술잔에 자작하면서, 들의 나뭇가지 바
라보며 기쁜 얼굴 짓도다 / 남창에 기

대어 오연하니, 집은 협소하지만 마음
은 편안하고 / 들에서 날마다 돌아다
녀 풍취를 즐기고, 문은 있으되 언제
나 닫혀 있네 / 지팡이 짚고 다니다
아무데서나 쉬면서, 때때로 고개 들어
먼 곳 바라보니 / 구름은 무심히 산골
짜기에서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기에
지쳐 등우리로 돌아오네 / 해는 너울
너울 지려하는데, 외로운 소나무 쓰다
듬으며 그대로 서성거리노라 / 돌아왔
노라!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끊었도다
/ 세상과 나는 서로 등졌으니, 다시
수레에 올라 무얼 얻겠는가 / 친척들
의 정다운 얘기 기꺼웁고, 거문고와
책 즐기니 시름이 사라지네 / 농부들
이 내게 봄 온 것 일러주니, 서쪽 밭
에 씨 뿐만 채비하려니 / 포장 친 수
레를 타기도 하고, 조각배 노를 혼자
서 젓기도 하네 / 깊숙한 골짜기 찾기
도 하고, 유통불통한 언덕 오르기도
하니 / 나무들은 심심하게 잘 자라나
고, 샘물은 졸졸 흐르네 / 만물이 때
를 얻음을 부러워하며, 내 삶이 멀지
않음을 느끼도다 / 아! 모든 것이 끝
났으니, 천지간에 몸담았으되 다시 얼
마나 생존하리 / 어찌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맡기지 않겠는가? 무얼 위해 활
활히 살아서 무얼 하겠기에 / 부귀는
내 소망이 아니요, 선경은 가기 바랄
수 없는 것 / 좋은 철 즐기며 홀로 나
서서, 지팡이 꽂아 놓고 풀 뽑기와 김
매기하고 / 동쪽 언덕에 올라 긴 휘파
람 불어보고, 맑은 시냇물 대하고 시
를 읊기도 하네 / 이렇게 자연 변화
따르다 목숨 다할 것이니 / 주어진 운
명 즐기는 데 다시 무얼 의심하리오!

서문: 우리 가정이 가난하여 농작을
하여도 자급하지 못하니, 어린애는 방
에 가득하고, 쌀 항아리는 비어있고,
생활을 하려고 해도 별 도리가 없었
다. 친지가 내게 작은 관리라고 해보
라고 하여, 나 역시 이런 생각을 하였

는데, 구해보아도 별 방법이 없었다.
이리하여 자리를 알아보던 중 나의
숙부께서 내가 빙곤함을 알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작은 성의 관리로 임
명되었다.

당시 전란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먼 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팽택은
집에서 백리쯤 떨어졌고, 공전의 수확
으로 양식과 양주를 할 만하니, 이리
하여 오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안 되
어서 떠나간 전원을 그리워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
겼다.

왜이런가? 나의 본성은 자연스럽고,
별로 변하지 못한다. 굽주리고 추위에
얼기가 비록 괴롭지만, 자신의 본심을
어기려니 그 아픔이 갑절이나 된다.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모두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해 내 몸을 부리는
것이로다. 이리하여 나의 번뇌와
울분이 일어나니, 평생에 뜻한 바를
생각하여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다. 곡
식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려서 행장을
수습하여 그 밤으로 떠나려한다. 정씨
가문으로 출가한 누이가 세상을 떠났
으니, 나의 심정은 비통하고, 당장 달
려가고 싶기에, 이에 벼슬을 버리고
떠나게 된 셈이다.

중추에서 겨울까지 팔십 여일동안
관직에 있었다. 이런 일로 내 심정을
표현하니, 문장을 “귀거래사”로 이름
짓노라. 때는 을사년 십일월 쯤.

아래에는 80여일간 팽택에서 근무할
때 가고만 싶었던 그의 전원에 돌아
온 후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
지 그 정황을 시로 그렸다.

작가 도연명(陶淵明), 그는 자가 원
량이고, 오류선생이며, 생몰연도는 約
365年- 427年이었다. 동진말기에서 남
송초기의 시인이었고, 문학가, 사부가,
산문가였다. 동진의 심양시상인어였으
며, 얼마간 작은 관리였다가 관직을
사직하고 귀가한 후 은거하였다. 전원
생활은 도연명 시의 주요 제재였고,
관련된 작품으로 음주, 귀전원거, 도화
원기, 오류선생전, 귀거래사 등이 있
다.

2019-20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이성길 회기(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1949 고영철	1952 박종식
1954 이동식	1955 노용면
1956 김신형 박상기 서상철	1957 임종식 임종원
1958 김부근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배영섭 송세엽 유영호 이상설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우	
1959 김교안 김한섭 나길진 반용균 방석운 서경화 임원기 정태진 최용천 최종진 한달수	
1960 권기홍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용주 한성수	
1961 곽동린 김영철 김학철 김화섭 박장생 박준환 안창현 이준우 이회백 이한수 정철웅 조은순 진창건 최공창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김석식 고홍호 남성희 박종건 승홍일 오태요 이상복 이석우 이재우 조명호	
1963 권영조 김계윤 김정일 김태웅 김현학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진수 이병준 이승현 조한원	
1964 강창만 김용두 신두식 선우세현	양운택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이웅만 이종성 아주영 이중오 이홍표 정유석 조동준 차응만 한태진 허선행 흥준표
1965 구경희 박수안 이광선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중 전영균 채도경 황규정	
1966 김의신 김우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장한교 조관상 한동수 한일성 황 철 최순채 최영자	
1967 강명식 김태웅 문경웅 우준균 유진일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1968 김경인 김명원 김순옥 김영남 노영일 서윤석 송창호 안세현 이상훈 정재성 최 철 흥광신 황훈규	
1969 김중권 서 량 송용재 오선웅 윤효윤 이충호 임웅규 정한규 최종진	
1970 박홍식 송요준 오석일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1971 강유구 강창홍 김일영 김제홍 김효순 박상효 서정자 오동환 이종일 이성길 조세진 하준영 활동하	
1972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장혜숙 정진우 황용규 흥성진	
1973 김정용 나두섭 민인기 서인석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1974 권철수 김웅진	1975 김자억 박인영 배영훈
1976 유영걸 1977 박일우	1981 이선희
1985 박정미 1988 신원석	1989 이선규
1999 김정훈 박종철	2001 김민정

37th CONVENTION DONATION

이종석(60) 100	한수웅(61) 100	한혜원(61) 100	이홍표(64) 150	허선행(64) 150
김진수(66) 50	장한교(66) 75	강창홍(71) 100	김성환(71) 1,000	김일영(71) 500
나두섭(73) 200	서인석(73) 500	배영훈(75) 50	이선규(89) 100	

GENERAL DONATION

노용면(55) 200	김신형(56) 200	서상철(56) 75	임종식(57) 125	임종원(57) 75
김교안(59) 50	최종진(59) 100	권기홍(60) 1,000	임종원(60) 50	한성수(60) 75
이회백(61) 1,000	진창건(61) 100	황현상(61) 75	권영조(63) 500	김계윤(63) 75
김현학(63) 75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양운택(64) 100	오유섭(64) 75
박수안(65) 100	이재진(65) 200	강명식(67) 175	문경웅(67) 100	이진수(67) 50
이상훈(68) 175	김중권(69) 200	오석일(70) 300	조남현(70) 100	오동환(71) 225
정한규(72) 50	오용호(72) 300	민인기(73) 50	박인영(75) 50	박정미(85) 100
신원석(88) 125	*Mrs. 한용현(48) 120		*Mrs. 송영두(62) 200	

CHARITY FUND

이상설(58) 100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채도경(65) 100
최영자(66) 200	하준영(71) 75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SCHOLARSHIP FUND

김학륜(58) 100	정태진(59) 75	임필순(60) 200	황현상(61) 200	고홍호(62) 200
조명호(62) 200	김태웅(63) 10,000	이홍표(64) 125	허선행(64) 100	김진호(66) 100
이영균(67) 100	조남현(70) 100	김효순(71) 125	서정자(71) 375	이성길(71) 500
김웅진(74) 100	김자억(75) 500	*Mrs. 한용현(48) 3,000		

GREEN PROJECT FUND

이종석(60) 75	전용주(60) 75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이광선(65) 75
이성길(71) 5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이선희(81) 100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박종철(99) 100			

AASCDFT DONATION

민발식(66) 100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 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br